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라팔 올빈스키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2012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김 연 아

라팔 올빈스키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김 연 아

인 준 서

김연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논문개요

오늘날 대중매체는 다양한 시각 이미지를 함유한 문화적 환경을 형성하였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시각 이미지는 예술가들에게 이미지 선택부터 다양한 활용 방법을 연구하는 것까지 창작의 범위를 확대 시켰다. 이러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이미지들과의 우연한 만남은 이제 사람들의 삶과 분리 할 수 없는 ‘일상’이 되었다.

본 연구는 라팔 올빈스키(Rafal Olbinski)의 데페이즈망(Dépaysement)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캐릭터와 스토리로 작품을 디자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컴퓨터 그래픽인 어도비포토샵의 사용 전과 후를 비교 제시하여 그 활용범위를 알리고자 한다.

작가 선정은 다른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작품에 비해 사람, 특히 여성이 많이 등장하고 은유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은 라팔 올빈스키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현실주의의 개념 및 특징과 표현기법을 살펴보고 그 중 데페이즈망 기법을 고립, 변형, 합성, 크기 변화, 모순적 이미지, 이중이미지, 역설, 개념의 양극화로 나누어 작가들의 작품을 비교분석 한다. 그 기법에 따라 수집된 이미지로 새로운 주제를 결정하여 작품으로 표현한다.

작품 I 은 ‘변형’ 그리고 작품 II,III은 ‘합성’의 기법으로 작품IV는 ‘역설’, 작품 V ~ VIII은 ‘개념의 양극화’에 해당하는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작품 I 의 “죽음”은 화려한 깃털을 잃은 늙은 공작새가 죽음의 여신에게 끌려가는 작품이다.

작품II의 “복수”는 화가 난 우산 여신이 남성에게 벼락을 내리는 설정으로 그녀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Ⅲ의 “클럽에서 춤을”에서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스팅글 의상을 입고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을 표현하였다.

작품Ⅳ의 “한(恨)”은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난 남편을 죽어서도 힘들게 하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품Ⅴ의 “도시의 여왕, 마를린 먼로”는 마를린 먼로가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에서 그녀를 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작품Ⅵ의 “지킬 앤 하이드”는 두 캐릭터의 메이크업 기법을 대비되게 표현하여 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표현하였다.

작품Ⅶ의 “우주에 떨어진 산타”는 산타가 여름 색감이 물씬 풍기는 연꽃잎 우산을 들고 개구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Ⅷ의 “나에게로 오세요.”는 외모 지상주의를 풍자하기 위해 ‘달려라 하니’에 나오는 민들레를 형상화하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메이크업과 캐릭터 디자인을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발상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화기법인 데페이즈망을 메이크업에 활용하여 메이크업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초현실주의 개념 및 표현 기법	3
2. 아트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15
III. 데페이즈망 기법과 라팔 올빈스키	28
1. 데페이즈망 표현기법과 초현실주의 작품	28
2. 라팔 올빈스키	48
IV. 작품 제작	58
1. 제작 의도	58
2. 작품 제작	60
V. 결론	100

참고 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에 따른 초현실주의 작품	47
<표 2> 작품제작에 활용 할 라팔 올빈스키의 이미지	51
<표 3> 어도비 포토샵의 툴(Tool)구성	52
<표 4> 이미지 자르기	54
<표 5> 이미지 합성	55
<표 6> 이미지 변형과 왜곡	56
<표 7> 이미지 색상 조절	57
<표 8> 데페이즈망 기법을 응용한 작품 디자인 계획	59
<표 9> 작품 I - 디자인 이미지	62
<표 10> 작품 II - 디자인 이미지	67
<표 11> 작품 III - 디자인 이미지	72
<표 12> 작품 IV - 디자인 이미지	77
<표 13> 작품 V - 디자인 이미지	82
<표 14> 작품 VI - 디자인 이미지	87
<표 15> 작품 VII - 디자인 이미지	92
<표 16> 작품 VIII - 디자인 이미지	96
<표 17>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과의 비교	99

그림 목 차

<그림 1> 안드레 마송, 「Battle of Fishes」	13
<그림 2> 호안 미로, 「Stars in the Sexual Organs of Snails」	13
<그림 3> 막스 에른스트, 「Leaf customs」	13
<그림 4> 오스카 도밍게스, 「Untitled」	13
<그림 5> 르네 마그리트, 「The Empire of Lights」	14
<그림 6> 살바도르 달리, 「Apparition of Face and Fruit」	14
<그림 7> 데 키리코, 「Two Sisters」	14
<그림 8> 막스 에른스트, 「Two children are threatened by a nightingale」	14
<그림 9> 마르셀 뒤샹, 「Fountain」	14
<그림 10> 빅터 앤 룰프, 2010 S/S COLLECTION	20
<그림 11> 존 갈리아노, 2010 S/S COLLECTION	20
<그림 12> 새의 형상을 이용한 판타지 메이크업	21
<그림 13> 식물의 형상을 이용한 판타지 메이크업	21
<그림 14> 귀도 다니엘의 보디 메이크업을 이용한 AT&T광고	22
<그림 15> 라네트 뉴엘의 Ani Human	22
<그림 16> 페인팅 기법을 이용한 보디 페인팅	26
<그림 17> 에어브러시 사용 이미지	26
<그림 18> 금속을 사용한 메이크업	27
<그림 19> 꽃을 사용한 메이크업	27
<그림 20> 비즈를 사용한 메이크업	27
<그림 21> 르네 마그리트, 「Un peu de l'âme des bandits」	30
<그림 22> 블라디미르 쿠시, 「Fashionable Bridge」	30

<그림 23>	르네 마그리트, 「Recollection of travels」	32
<그림 24>	라팔 올빈스키, 「Interactive displacement of manners」	32
<그림 25>	르네 마그리트, 「The nature graces」	32
<그림 26>	라팔 올빈스키, 「Charismatic impulse」	32
<그림 27>	르네 마그리트, 「red model」	34
<그림 28>	블라디미르 쿠시, 「African Sonata」	34
<그림 29>	블라디미르 쿠시, 「Treasure Island」	34
<그림 30>	라팔 올빈스키, 「Defense against banality」	35
<그림 31>	라팔 올빈스키, 「Conspiracy of choices」	35
<그림 32>	르네 마그리트, 「The Tomb of The Wrestlers」	37
<그림 33>	르네 마그리트, 「The Listening Room」	37
<그림 34>	블라디미르 쿠시, 「Eye of the Needle」	37
<그림 35>	블라디미르 쿠시, 「Horn of Babel」	37
<그림 36>	르네 마그리트, 「The Battle Of The Argonne」	39
<그림 37>	르네 마그리트, 「Castle in the pyrenees」	39
<그림 38>	라팔 올빈스키, 「DON CARLOS」	39
<그림 39>	라팔 올빈스키, 「Hide and Seek」	39
<그림 40>	르네 마그리트, 「The domain of Arnheim」	41
<그림 41>	르네 마그리트, 「The Seducer」	41
<그림 42>	라팔 올빈스키, 「Iris」	41
<그림 43>	라팔 올빈스키, 「Samson and Dalila」	41
<그림 44>	르네 마그리트, 「Hegel's holiday」	43
<그림 45>	라팔 올빈스키, 「The ballad of baby doe」	43
<그림 46>	르네 마그리트, 「Le plagiat」	45
<그림 47>	라팔 올빈스키, 「Natalia as Tosca」	45

<그림 48> 라팔 올빈스키, 「Midsummer marriage」	45
<그림 49> 라팔 올빈스키, 「Tentative intimacy」	46
<그림 50> 라팔 올빈스키, 「Complexity of emblematic episode」	46
<그림 51> 작품 I - 메이크업	63
<그림 52> 작품 I	64
<그림 53> 작품 II - 메이크업	68
<그림 54> 작품 II	69
<그림 55> 작품 III-메이크업	73
<그림 56> 작품 III	74
<그림 57> 작품 IV-메이크업	78
<그림 58> 작품 IV	79
<그림 59> 작품 V-메이크업	83
<그림 60> 작품 V	84
<그림 61> 작품 VI-메이크업1	88
<그림 62> 작품 VI-메이크업2	89
<그림 63> 작품 VI	90
<그림 64> 작품 VII-메이크업	93
<그림 65> 작품 VII	94
<그림 66> 작품 VIII-메이크업	97
<그림 67> 작품 VIII	98

I. 서론

오늘날의 아트메이크업은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아트메이크업 작품은 잡지 표지, 포스터, TV 등 기타 미디어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 될 뿐 만 아니라, 예술적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서도 인정받고 있어 메이크업 기법과 발상적인 측면까지도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다.

아트메이크업은 회화나 패션, 건축 등 다양한 장르와 상호소통하며 발전한다. 특히, 미술사조와 메이크업과의 상관관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아티스트들이 과거의 특징적인 미술사조와의 결합, 작가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와 이미지를 창출하며 나아가 캐릭터와 스토리를 제시하고¹⁾ 작가 개인의 개성이 묻어나는 작품을 제작한다.²⁾ 많은 미술 사조 중 초현실주의는 이성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것들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발상의 제한 없이 창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아트메이크업 작품제작에 접목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분야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다. 광고나 잡지에 실게 되는 메이크업 작품이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디지털 이미지화 되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픽 기술과의 접목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또한 그 기술을 접목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발상을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의 미술사조와 메이크업 작품제작에 관한 연구를 고찰해본 결과 그 사조에 해당하는 기법을 메이크업에만 연결시킨 것을 알 수 있었

1) 이현주 외 3명, 「The Make-up」, 서울: 도서출판예림, 2005, p.11.

2) 한정아, 「공예조형의 인체 형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16.

다. 기존의 작품에서는 얼굴과 보디에서만 그 사조의 특성을 찾을 수 있었고, 배경은 다루어 지지 않았다. 하나의 작품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제에 해당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까지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현실주의 화가인 라팔 올빈스키(Rafal Olbinski)의 작품에 나타나는 데페이즈망(Dépaysement) 기법을 중심으로 아트메이크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이를 응용하여 새로운 캐릭터와 스토리를 만들어 하나의 작품으로서 이미지 표현을 하고자 하며, 새로운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연구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시도의 구축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을 알아보고 그 중 데페이즈망 기법을 세분화하여 각 기법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작품 제작에 있어 오브제 그 자체의 변형이 적고 재미있는 조합으로 활용성이 가장 높은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을 연구하여 아트메이크업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데페이즈망 표현 기법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도비 포토샵의 기능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연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데페이즈망 기법별로 나누어 새로운 스토리와 캐릭터를 가진 아트메이크업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초현실주의의 개념 및 표현기법

1) 초현실주의의 개념 및 특징

초현실주의(Surrealism)는 제 1차 세계대전(1919년)부터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직후(1939년) 까지 약 20년 동안 세계 예술계를 휩쓴 가장 실험적이고 영향력이 컸던 예술운동이었다.³⁾ 작가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가 1917년 파리에서 처음으로 ‘초현실주의’라는 말을 사용하였다.⁴⁾ 초현실주의는 이성에 의한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꿈의 전능과 타산적이지 않은 사고에 그 근거를 두며⁵⁾ 무의식의 세계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고 총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⁶⁾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데 목적을 둔다.⁷⁾ 초현실주의자들은 어떤 주의(主義)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와 작품 활동을 통해서 리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창조 하였다.⁸⁾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는 논리적인 사유로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선악(善惡), 미추(美醜)의 개념, 고상함과 야비함 등이 서로 어울려 상호 침투하는 세계를 추구한다.⁹⁾ 그러한 세계를

3) 최지희,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이용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15.

4) Fiona Bradley, 「Surre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6.

5) 매슈 게일, 「다다와 초현실주의」, 서울: 한길아트, 2001, p.217.

6) 조은, 「르네 마그리트의 영향을 받은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1.

7) Sarane Alexandrian, 「Surrealist Art」, London: Thames and Hudson, 1985, p.163.

8) S. 알렉산드리안, 이대일 역, 「초현실주의 미술」, 서울: 열화당, 1992, p.5.

9) 신현숙, 「초현실주의」, 서울: 동아출판사, 1992, p.115.

밝히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힘을 빌려 시공의 경계선을 없애고 기교, 표현, 형태들을 쇠퇴시켜 새로운 미를 창출해야 하였다.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학설에서 무의식이 중점적 위치를 차지한 것처럼 초현실주의자들도 무의식 자체를 비중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¹⁰⁾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¹¹⁾은 전통 미술이 단지 눈의 망막에만 호소할 뿐, 정신과의 교감은 소홀히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꿈, 욕망, 상상 들은 “보이게 만들어야”하였다. 그렇기에 더더욱 상상력과 내면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중요하였던 것이다.¹²⁾ 그렇게 심층 의식의 요소들을 시각화함으로써 가시적인 의식의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객관적인 것(물질적, 구체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상상적, 몽환적인 것) 사이의 융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¹³⁾ 초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자연을 재해석하려는 경향도 보여주었다. 1929년 발표된 안드레 브르통(Andre Breton, 1892~1966)의 ‘제 2선언’에 따르면 “인간의 상상력이 무생물에게 멋지게 복수한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후에 르네 마그리트(Rene Magritte, 1898~1967)의 회화에서도 명백하게 표현되는데, 그는 무생물인 대상들에게 신비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¹⁴⁾

초현실주의는 다음 세대의 미술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개인과 공공 간의 또는 미술가와 관람자 간의 구분을 파기한 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다른 미술방식에도 스며들어 상황주의(Situationism)¹⁵⁾나 플럭서스(Fluxus)¹⁶⁾와 같은 미술경향을 낳게 하였다.¹⁷⁾ 초현실주의자들의 콜

10) 이주헌, 「미술로 보는 20세기」, 서울: 학고재, 1999, p.207.

11) 마르셀 뒤샹, 1887년 프랑스 출생. 다다와 초현실주의 운동에 깊은 영향을 끼친 화가.

12) 카트린 클링죄어 르루아, 김영선 역, 「초현실주의」, 서울: 마로니에북스, 2008, p.23.

13) 최지희, 전계서, p.16.

14) 카트린 클링죄어 르루아, 김영선 역, 전계서, p.19.

15) 상황주의; 행동은 주로 직접적인 사태에 즉응한 형태로 일어난다고 하는 이론.

16)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일어난 국제적인 전위예술 운동.

17) 전옥희, 「초현실주의 우연성을 적용한 상상의 세계 표현 방법의 활성화」, 백석대학교 석사학

라주에 대한 관심은 그것을 미술기법으로 영속하게 했으며, 사고와 몸짓을 결합시키는 자동작용에 대한 열망은 젊은 추상표현주의 미술가들의 작품에서 다시 꽃피었다.¹⁸⁾

2) 초현실주의의 표현기법

초현실주의 작품은 그림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 방법도 많이 달라졌으며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은 이 사조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이론의 토대로 삼고 새로운 표현 기법을 창조하였다.¹⁹⁾ 무의식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자동기술법, 비논리적 상황을 표현하는 데페이즈망, 우연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콜라주 등으로 나눌 수 있다.²⁰⁾

(1) 자동기술(Automatism)

자동기술은 무의식의 세계를 작품에 표현하려는 초현실주의의 대표적 기법이다. 이 기법은 미리 의도하지 않고, 외부의 자극을 차단한 채 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연상되는 것, 떠오르는 빛깔, 형태 등을 붓 가는 대로 그리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 과정을 거쳐 생기는 선과 형태는 무의식을 투영하고 있다고 한다. 초현실주의자들이 불가사의, 환상의 세계를 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창안했던 자동기술법은 바로 정신분석학의 자유연상법을 예술표현기법으로 변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²¹⁾ 모리스 블랑쇼(Maurice Blanchot, 1907~2003)가 말하길 “자동기술은 자신

위논문, 2006, p.19.

18) 피오나 브래들리, 김금미 역, 「초현실주의」, 서울: 열화당, 2003, p.73.

19) 신현숙, 전계서, p.217.

20) 상계서.

21) 임두빈, 「현대미술의 전개와 비평」, 서울: 미진사, 1988, p.32.

의 근원으로 돌아오기 위해 욕망에 몸을 맡기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무의식중에 하는 낙서와도 일맥상통 하는데, 초현실주의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낙서를 통해 스스로에게 가장 흥미로운 측면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²²⁾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 1813~1855)는 ‘낙서를 할 수록 당신의 창의력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동기술은 의식적인 상태에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자동기술로 쓰인 문자나 이미지들은 이성의 의도적인 행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자신조차도 경이롭고 낯설게 느껴진다.²³⁾ 호안 미로(Joan Miro, 1893~1983)는 “나는 무엇인가를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그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있으면 나의 붓질로 인해 그림은 확실해지며 무엇인가를 연상케 한다. 그림이 완성됨에 따라 형태는 여자, 또는 새로 변화한다. 첫 단계는 이렇게 자유롭고 무의식적으로 전개된다.” 라고 하였다. 이렇듯 자동기술은 무의식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우연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자동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안드레 마손(Andre Masson, 1896~1987)의 물과 모래를 혼합한 모래 그림 (그림 1)이 있으며, 호안 미로의 선과 면, 추상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구성된 (그림 2) 등이 있다.

(2) 프로타주(Frottage)

프로타주 기법은 나무 조각, 돌, 형질 등 울퉁불퉁한 물건 위에 종이를 놓고, 연필이나 숯으로 문질러서 독특한 형태의 모양을 얻어내는 것이다. 프로타주의 원 뜻은 ‘마찰’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Frotter’에서 나왔다.²⁴⁾

22) 전옥희, 전계서, p.11.

23) 조은, 전계서, pp.10-11.

24) 최지희, 전계서, p.22.

이 기법은 1925년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1891~1976)에 의해 개발되었다. 프로타주 기법으로 제작된 그의 드로잉 원본들은 ‘이미지의 명료화’ 과정을 거친 후에야 완성 되었다.²⁵⁾ 이 과정은 어렵듯하게 얻어진 이미지를 명확하게 바꾸는 작업을 말한다. 1926년 출간한 삽화집 ‘자연사(Histoire Naturelle)’에서 막스 에른스트는 프로타주 기법을 사용하여 나뭇결의 질감을 베껴낸 뒤, 그 질감을 야수처럼 보이도록 변형시켰다(그림 3).

초기에 나타나는 우연적 요소를 필연적인 형상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상상, 환상이라는 감상자의 우연적 계기로 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법에 자동기술적인 의의가 있고 초현실주의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⁶⁾ 이 기법은 현재의 특수분장 분야에서 캐릭터의 여러 가지 피부질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응용되어 활용되고 있다.

(3) 데칼코마니(Decalcomanie)

데칼코마니는 전사술(轉寫術), 전사화(轉寫畫)의 뜻으로 오스카 도밍게스(Oscar Dominguez, 1906~1958)가 1936년경부터 즐겨 썼다(그림 4).²⁷⁾ 데칼코마니는 원래 도기나 유리기구 등의 특수한 종이에 그린 그림을 옮겨서 염색하는 기법으로,²⁸⁾ 회화에서는 유화 물감을 어떤 면 위에 묻혀서 캔버스에 찍어 옮기는 기법을 일컫는다. 이 기법은 두 장의 종이가 거의 말랐을 때 가장자리부터 들어 올려 두 장의 종이를 떼어내는 수법으로 작가도 예측하지 못하는 대칭적인 우연적 효과를 얻을 수

25) 최지희, 전계서, p.22.

26) 베르너슈비츠, 박순철 역, 「막스 에른스트」, 서울: 열화당, 1994, pp.18-20.

27) 최지희, 전계서, p.23.

28) 이선영, 「초현실주의 기법을 이용한 아동화의 다양한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8.

있으며, 이 때 생긴 대칭적인 형상은 어떤 생명체와 같은 연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인간이나 동물들을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잘라보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 대칭에 의해 그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잠재적인 생각이 그런 연상을 가져오게 한다는 주장이 있다.²⁹⁾

막스 에른스트 또한 종종 이 기법을 이용하였는데, 그는 데칼코마니 기법으로 찍어낸 형상에 현실적인 인물의 상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일부를 지워 가면서 작품을 완성하였다.³⁰⁾ 데칼코마니는 무의식과 우연의 효과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이 기법에 의해 나타난 이상한 형상은 환각의 세계를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표현 영역을 확대시켜 이후 판화, 회화, 일러스트레이션 등에도 이용되어졌다.³¹⁾ 데칼코마니는 작가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색다른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성을 거부하고 무의식을 중시하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입장과 잘 부합한다.

(4) 데페이즈망(Dépaysement)

데페이즈망은 일종의 전위법(轉位法)으로 모순 대립되는 요소들을 동일한 화폭에서 결합시키거나, 낯익은 물체를 전혀 뜻하지 않은 환경에 위치시켜서 시각적 충격과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기법이다.³²⁾ 이 기법의 이론적 근거는 초현실주의 선언에서 말해졌던 것으로 일상의 관념과 시각적 질서체계를 뒤엎는 환영을 창조하는데 있다.³³⁾ 데페이즈망은 여러 개의 차원에 속하는 사물들이 병존하면서 논리적 모순 관계를 만들어 낸다. 데페이즈망의 형태에는 선(線)들의 원근법의 파괴, 눈속임, 전혀

29) 오광수, 「이야기 서양미술, 서양미술 이야기」, 서울: 정우사, 1997, p.341.

30) 최지희, 전계서, p.24.

31) 김광자, 전계서, p.27.

32) 최지희, 전계서, p.24.

33) 임두빈, 「한권으로 보는 서양 미술사 이야기」, 서울: 가람기획, 2003, p.297.

다른 현실에 속하는 대상을 나란히 놓기, 세부 요소의 확대 등이 있다.³⁴⁾

대표적인 작가로는 르네 마그리트 (그림 5)와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 (그림 6), 데 키리코(De Chirico, 1888~1978) (그림 7) 등이 있다. 르네 마그리트는 사물을 거의 왜곡시키지 않고 병치와 결합이라는 방법을 통해 낯익은 사물들을 이질적인 요소로 만들었으며 얼굴이 없거나 몸통이 없는 사람, 발가락이 있는 장화, 낮과 밤이 공존하는 풍경 등을 그렸다. 르네 마그리트는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만난 적이 없는 장소에 오브제를 두고 이미 알고 있는 오브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오브제를 창조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³⁵⁾ 살바도르 달리는 정신 착란 현상의 해석적, 비판적 연상에 기본을 두고 있는 ‘편집광적 비판방법’ 이라고 하는 그 만의 독특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다.³⁶⁾ 그는 얼굴이나 팔다리를 기형적으로 확대하는가 하면, 시계와 같은 딱딱한 물체를 부드러운 형태로 변형시켰다.³⁷⁾

이후 이 기법은 팝아트(Pop-Art)나 하이퍼 리얼리즘(Hyper-Realism), 프랑스의 신 구상 회화와 같은 형상적인 회화에서 발전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나아가 이 기법은 문학적으로 혹은 언어 표현이 불가능한 내용을 전달가능하게 하였다.³⁸⁾

데페이즈망 기법은 초현실주의의 여러 표현기법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현대의 미술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34) 신현숙, 전계서, p.218.

35) Noel, Berrard, 「Magritte」, New York: Crown Publisher Inc, 1977, pp.52-63.

36) 최지희, 전계서, p.24.

37) 김광자, 전계서, pp.28-29.

38) 조민경, 「추상적 초현실주의 기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회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p.23.

(5) 콜라주(Collage)

콜라주는 파피에 콜레(Papiers-Colles)³⁹⁾에서 발전한 기법으로 다다이즘을 거쳐 초현실주의로 이어져 내려왔다. 콜라주는 화면에 종이, 천, 나무 조각, 쇠붙이 등을 붙여 구성하는 회화의 기법으로 1911년경에 ‘피카소’와 ‘브라크’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⁴⁰⁾

콜라주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상징과 기호들이 들어있다. 이것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는 이의 시각에서 나오는 다양한 해석에서부터 비롯되기도 하였다.⁴¹⁾

콜라주 기법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잠시 퇴조하였으나 1950년대부터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⁴²⁾ 막스 에른스트는 1924년 「Two children are threatened by a nightingale」 (그림 8)이라는 작품에서 콜라주 기법을 이용해 그림에 나타난 이야기를 조리 있게 이해하려는 의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그림감상의 가치관을 혼란시켰다.⁴³⁾ 에른스트는 후에 콜라주를 “부조리한 평면 위에서 전혀 관계없는 두 실재간의 우연한 상봉” 이라고 묘사했는데,⁴⁴⁾ 이는 여러 요소들을 부적합한 면에 붙여 놓고 그것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긋남과 임의성에 의해 상징, 비유, 연상적 효과를 노려 초현실적 이미지를 확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⁵⁾ 콜라주는 연관성이 없는 서로 다른 오브제를 배치하여 연상

39) 파피에 콜레(Papiers-Colles)-붙어로 종이와 부착물이란 뜻으로 1912년경 입체파 화가 피카소와 브라크에 의해 시작, 화면에 우표, 신문, 악보, 담배 갑, 상표, 벽지 등을 부착하여 표현하는 기법.

40) 이종기, 「현대미술용어사전」, 서울: 중앙일보사, 1984, p.173.

41) 조은, 전계서, p.13.

42) 최지희, 전계서, p.26.

43) 노버트 린튼, 윤난지 역, 「20세기의 미술」, 서울: 예경, 2000, p.190.

44) 김광자, 전계서, p.31.

45) 정선영, 「초현실주의 회화에 나타나는 왜곡된 심상과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17.

되는 이미지를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기에 좋은 표현 방법 중 하나이다.

(6) 오브제(Objet)

오브제란 인식의 대상이나 목적물을 뜻하는 용어로서 미술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제에 대비되는 물질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여기서의 대상은 미술가가 만들어 내는 물체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것을 가리킨다.⁴⁶⁾ 마르셀 뒤샹의 「Fountain」(그림 9)이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남자 소변기는 소변기 본래의 기능과 역할 대신에 다른 물체로의 변질을 일으켰다.⁴⁷⁾ 20세기 초반 뒤샹의 즉물적(卽物的) 오브제와 초현실주의자에 의하여 사용된 상징적(象徴的) 오브제는 반전통적 예술행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오브제가 새로운 주제적 장르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다양한 물체를 그들의 조형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부터였다.⁴⁸⁾ 오브제 예술은 20세기 후반에 들어 회화, 조각, 건축, 공예, 디자인 및 개념미술 등 각 영역의 경계 구분이 모호한 하나의 새로운 조형 개념을 형성하였다.⁴⁹⁾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오브제 기법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 깃털, 큐빅, 징 장식 등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하여 메이크업에 입체감을 더하고 있다.

초현실주의 기법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각 기법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이 여섯 가지 기법은 이성의 속박에서 벗어나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것들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이 기법들은 현대의 예술가들에게

46) 이선영, 전계서, p.6.

47) 오정수, 「이야기 서양미술, 서양 미술 이야기」, 서울: 정우사, 1996, pp.341-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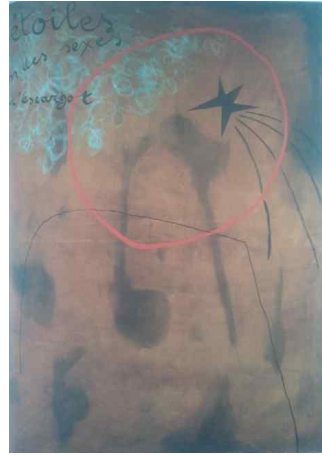
48) 최지희, 전계서, p.27.

49) cafe.naver.com/wltdldq/188 (2012.4.4)

도 작품제작에 꾸준히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등 창의적인 발상을 필요로 할 때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림 1> 안드레 마쉴,
「Battle of Fishes」, 1926
(출처- Fiona Bradley, Surrealism, p.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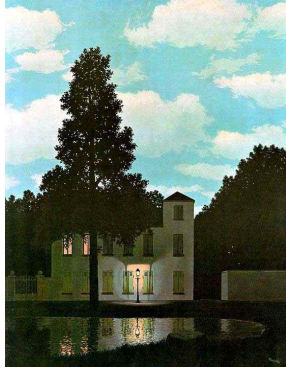
<그림 2> 호안 미로,
「Stars in the Sexual Organs of
Snails」, 1925
(출처- Cathrin Klingsohr-Leroy,
Surrealism, p.75)



<그림 3> 막스 에른스트,
「Leaf customs」, 1925
(출처- <http://yo12yo12.blog.me>)
(검색일: 2012.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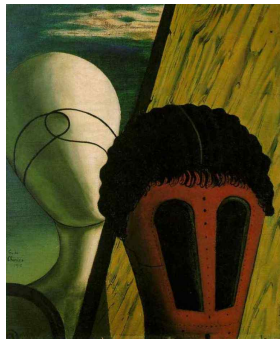
<그림 4> 오스카 도밍게스,
「Untitled」, 1936
(출처- <http://www.rsstanford.com>)
(검색일: 2012.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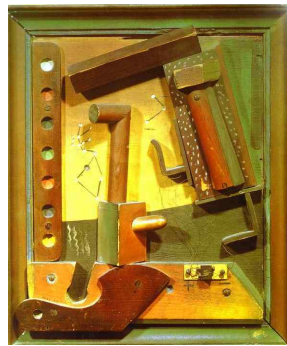
<그림 5> 르네 마그리트,
「The Empire of Lights」, 1954
(출처- Cathrin Klingsohr-Leroy,
Surrealism, p.69)



<그림 6> 살바도르 달리,
「Apparition of Face and Fruit」, 1938
(출처- Paul Moorhouse, Dali, p.92)



<그림 7> 테 키리코,
「Two Sisters」, 1915
(출처- Cathrin Klingsohr-Leroy,
Surrealism, p.34)



<그림 8> 막스 에른스트,
「Two children are threatened by a
nightingale」, 1924
(출처-<http://armada0219.blog.me>)
(검색일: 2012. 5.1)



<그림 9> 마르셀 뒤샹,
「Fountain」, 1917
(출처- Fiona Bradley, Surrealism, p.14)

2. 아트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1) 아트메이크업의 개념

아트메이크업의 정의를 보면 ‘얼굴 혹은 신체를 대상으로 각양각색의 그림, 형태, 장식 등을 이용하여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주제를 표현하고, 창의적으로 이미지화하여 메이크업을 예술의 경지로 만드는 분야’라고 한다.⁵⁰⁾ 아트메이크업은 주제에 따라 여러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여 인간을 디자인 하며, 눈, 코, 입의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캐릭터를 창조하고 있다. 따라서 아트메이크업 작가는 단순히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그 시대의 문화를 반영하여 인물을 재창조하고 인체를 디자인하는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⁵¹⁾

아트메이크업에서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발상’이 중요하다.⁵²⁾ ‘발상’은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형태나 소재에 있어서 새로움을 표현한다.⁵³⁾ 메이크업 작가는 신체를 도화지 바탕으로 생각하여 작가의 상상력과 표현기법을 통해 원하는 이미지를 창조한다.⁵⁴⁾

오늘날 아트메이크업은 예술성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으로 색이나 표현, 주제, 기법, 재료 등에 구속을 받지 않고 실험적인 조형예술의 한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⁵⁵⁾ 아트메이크업은 예술적인 이미지를 중시하여 많은

50) 한국미용 학회, 「미용학 사전」, 서울: 신광출판사, 2003, p.573.

51) 이윤정 외, 「MAKE UP IDEA」, 서울: 청구 문화사, 2009, p.8.

52) 신원선, 「아트 메이크업 교육을 위한 MIS 디자인 발상 프로세스」, 서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8.

53) 신원선, 오인영,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발상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2010, pp.145-162.

54) 이상훈, 「메이크업 예술 기법」, 서울: 도서출판 들샘, 2007, p.141.

예술사조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포스트모더니즘과 초현실주의적 경향의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 아트메이크업의 종류 및 특징

(1) 패션 메이크업

패션쇼는 모델, 의상, 음악, 조명, 메이크업, 헤어 등 여러 전문 분야가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는 복합예술이다. 단순히 의상을 선보이는 자리에 불과했던 초기의 패션쇼와는 다르게, 화려한 조명과 모델들의 위킹 그리고 독특한 메이크업 등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의 패션쇼는 갈수록 전문분야의 완벽한 조화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⁵⁶⁾ 그 형태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다양해지고 개성화되고 있다.

패션 메이크업은 인체를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을 넘어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 토털 패션의 다루며, 패션 메이크업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가치관, 기호, 상황 등을 표현하여 그가 속한 사회, 문화와 교류를 한다.⁵⁷⁾ 메이크업은 의상과 조화를 이루며 의상을 돋보이도록 디자인하고 강한 조명과 움직임으로 메이크업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시술하도록 한다.⁵⁸⁾ <그림 10>은 빅터 앤 롤프(Victor & Rolf)의 2010년 SPRING & SUMMER COLLECTION에서 선보인 메이크업으로 볼륨감 있는 잔주름 프릴과 어우러지는 색감으로 메이크업을 완성하여 한층 의상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1960~)의

55) 이윤선, 「조르주 쇠라의 점묘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제작」,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17.

56) 천지연 외 8명, 「Faces in make up」, 서울: 청구문화사, 2009, p.204.

57) 이상훈, 전계서, p.222.

58) 김효경, 「메이크업-이론과 실제」, 서울: 학연사, 2003, p.21.

2010년 SPRING & SUMMER COLLECTION에서는 연극이나 영화에 등장할 법한 다소 과장된 스타일들을 선보였는데 헝클어진 머리와 기묘한 메이크업(그림 11)은 어둡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2) 판타지 메이크업

판타지의 어원은 “터무니없는 공상, 종잡을 수 없는 상상이나 즉흥적인 착상, 계획된 디자인의 흥미로운 발명”을 뜻한다.⁵⁹⁾ 판타지 메이크업은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화려하고 과장되게 이미지를 표현하여 작품의 효과를 높이는 기법이다.⁶⁰⁾ 디자인을 할 때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포인트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고 나머지 부분은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로 표현되어야⁶¹⁾ 상대에게 쉽게 주제를 전달 할 수 있으며 산만해 질 수 있는 요소를 줄일 수 있다.⁶²⁾ 판타지 메이크업에서는 강렬하고 파격적인 효과를 내기위해 메이크업 포인트의 색상을 두드러지게 표현한다.

판타지 메이크업은 독특한 소재와 표현기법으로 디자이너의 예술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전달한다.⁶³⁾ 판타지 메이크업은 실제와 상상의 세계를 교합하는 추상적 존재, 현실과 초 현실을 연결하는 도구로 발전되어 왔으며 새(그림 12)와 동물 등의 형상이나 계절, 꽃, 식물(그림 13) 등의 자연에서 찾는 소재들을 주로 사용한다.⁶⁴⁾ 추상적 표현으로는 기하학적인 문양, 아라베스크 문양, 차가운 이미지와 따뜻한 이미지 등을

59) 이윤선, 전계서, p.18.

60) 한명숙, 「마키아주 예술」, 서울: 청구문화사, 1999, p.185.

61) 오인영,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서울: 훈민사, 2010, pp.10-11.

62) 신원선, 전계서, p.12.

63) 김현미, 「포스터모던시대의 네오아방가르드 패션 메이크업의 기호적 해석」,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42.

64) 이윤선, 전계서, p.18.

형상화한 표현 등이 있다.⁶⁵⁾

판타지 메이크업은 인간의 상상력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초현실주의와도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다.

(3) 보디 메이크업

인체 공간 전체에 채색을 하고 디자인하는 행위를 보디 메이크업이라고 하며, 보디 메이크업은 문명의 여명에서 시작되어 발전과 쇠퇴를 거듭해 오다가 1966년 아트 디렉터인 마틴 리트(Martin Ritt, 1914~1990)에 의해 재조명되었다.⁶⁶⁾ 보디 메이크업에서 인간의 몸은 예술의 행위자인 동시에 하나의 표현적 매체이며, 보디 메이크업은 인체 전체나 일부에 회화적인 요소(점, 선, 면, 색)를 가미하여 특정 이미지를 부여한다.⁶⁷⁾

보디 메이크업은 오래 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보디 메이크업은 인간의 생존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시작되어 원시시대에는 맹수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주술적 행위나 부족 간의 구별수단으로 사용되었다.⁶⁸⁾ 초기 문신의 경우, 성인이 되기 위한 의식과 관련되어 있거나 주술적 의미로 여겨지며 그 기원은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⁶⁹⁾ 이렇게 전해져 오던 보디 메이크업이 오늘날에는 현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⁷⁰⁾

보디 메이크업에서 질감표현은 시각적, 촉각적,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3차원적 표현방법을 주로 사용하며,⁷¹⁾ 20세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 질감

65) 이상봉, 「Mastering Beauty, 메이크업디자인」, 서울: 청구문화사, 2004, p.119.

66) 강민정, 「패션누드에 나타난 보디페인팅의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7.

67) 이상훈, 전계서, p.142.

68) 박보영 외 3명, 「메이크업 아트」, 서울: 청구문화사, 2002, p.206.

69) Richard Carson, 「Fashion in Make-up: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Chester Springs: Peter Owns, 2003, p.1.

70) 강대영, 「한국분장예술」, 서울: 지인당, 1999, p.255.

의 제품 발달로 인해 보디 메이크업 표현기법도 발전하고 있다.⁷²⁾

현재 보디 메이크업은 인체의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예술성을 추구하고 있다.⁷³⁾ 인체를 하나의 조형물로 간주하여 조형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하기도 하며 기존의 정형화된 채색 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적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보디 메이크업만이 지니는 독특한 특징을 부각시켜 패션쇼, TV광고, 기업홍보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⁷⁴⁾ 귀도 다니엘(Guido Daniele, 1950~)의 보디메이크업을 이용한 AT&T 광고 시리즈 (그림 14)는 인체의 조형성을 잘 살린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라네프 뉴엘(Lennette newell, 1974~)의 Ani Human 시리즈(그림 15)는 다양한 질감 표현으로 인한 동물과의 교감으로 하나의 아트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71) 방기정,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31.

72) 최경옥,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보디 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42.

73) 이윤선, 전계서, p.20.

74) 박보영 외3명, 전계서, p.206.



<그림 10> 빅터 앤 롤프(Victor & Rolf)
 2010년 SPRING & SUMMER COLLECTION
 (출처-II Dong Kim, Trend File, N.01, p.118)



<그림 11>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2010년 SPRING & SUMMER COLLECTION
 (출처-II Dong Kim, Trend File, N.01, p.5)



<그림 12> 새의 형상을 이용한 판타지 메이크업
(출처-<http://blog.naver.com/hoes21c>) (검색일: 2012.6.20)



<그림 13> 식물의 형상을 이용한 판타지 메이크업
(출처-<http://www.permitidoparagartas.com/2012/02/mas-makes-pro-carnaval.html>)
(검색일: 2012.6.20)



<그림 14> 귀도 다니엘(Guido Daniele)의 보디 메이크업을 이용한
AT&T 광고 시리즈

(출처-<http://www.winextra.com/tech/an-att-world-created-by-using-amazing-body-painted-hands-wow>) (검색일: 2012.6.20)



<그림 15> 라네트 뉴엘(Lennette newell)의 Ani Human 시리즈

(출처-www.lennettenewell.com) (검색일: 2012.6.20)

3) 아트메이크업의 표현기법

(1) 페인팅 기법

페인팅 기법은 여러 가지 회화적 요소를 이용한 보디페인팅의 기법으로 아트 메이크업에서 여러 표현 기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⁷⁵⁾ 주로 자연물이나 대상을 형상화시켜 주체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정밀묘사 등의 회화적 요소를 이용하는 페인팅 기법(그림 16)과 우연적 이미지를 위해 물감을 뿌리는 방법인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 기법이 있다.⁷⁶⁾ 회화적 기법에 에어브러시 기법이나 프로젝트 투영 기법을 동원하여 변화를 주면 새로운 표현방식이 되기도 한다.⁷⁷⁾

페인팅의 재료는 고체, 액체 및 크림 타입의 재료가 있다. 압축 케이크 타입의 고체 재료는 브러시나 스펀지에 물을 묻혀 사용하며, 액체 재료는 붓이나 스펀지에 묻혀 그대로 사용한다.⁷⁸⁾ 면을 칠하는 용도의 납작한 브러시와 끝이 둥근 브러시, 세밀한 곳을 칠하기 위한 끝이 뾰족한 브러시 등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페인팅 브러시를 사용하며 최종적으로 가는 선이나 작은 면을 수정, 보충해준다.⁷⁹⁾

(2) 에어브러시 기법

에어브러시 기법은 공기 압축기와 에어브러시 건을 이용하여 색을 분사하는 기법이다. 에어브러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40년대 후반으로 최근에는 인쇄제판과 양화사진의 수정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

75) 이현주, 「피카소의 회화를 이용한 보디아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24.

76) 박천신, 「디지털 아트 디지털 페인팅」, 서울: 한언, 2008, p.16.

77) 박혜선, 「조선시대 민화의 문자도를 응용한 보디페인팅 작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13.

78) 이상훈, 전계서, p.143.

79) 상계서, p.145.

다.⁸⁰⁾ 에어브러시 노즐의 규격은 지름 0.2mm~1mm가 있으며 노즐의 지름이 작을수록 가늘고 고운 입자로 분무된다.⁸¹⁾ 에어브러시를 사용한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운 표현이 가능하고, 그라데이션이 용이하다. 또한 넓은 부위를 빠른 시간에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원하는 모양을 폼에 대고 에어브러시로 그 주위에 뿌려주는 스텐실(stencil)⁸²⁾을 이용하여 특정 디자인을 쉽고 빠르게 표현할 수 있다. 공기압축기 및 에어브러시 건의 장비 구입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장비 사용 후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⁸³⁾ <그림 17>은 에어브러시를 이용해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사진이다.

(3) 오브제 기법

오브제는 물체, 객체 또는 대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오브제 기법은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들어 3차원의 공간을 장(場)으로 하고 가시적 질량을 소재로 공간에 미적 형태를 부여한다.⁸⁴⁾ 오브제는 질감의 형태, 색채와 함께 필수 조형요소 중 하나이다. 오브제의 사용은 물체의 표면이 갖는 특성이나 안료의 성질, 대상의 양감 등을 가지고 촉각, 시각적으로 환기 시키는 효과가 있다.⁸⁵⁾

현재 아트 메이크업에서 오브제를 응용한 메이크업 기법은 다양한 소재의 확장과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제품 외에 종이, 금속(그림 18), 깃털, 꽃(그림 19), 스팅글,

80) 김공용, 「Airbrush illustrations」, 서울: 조형사, 1991, p.140.

81) 이재형,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보디페인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43.

82) 박혜선, 전계서, p.16.

83) 이윤선, 전계서, p.24.

84) 한석우, 「입체조형-이론과 실제」, 서울: 미진사, 1991, p.12.

85) 강현신,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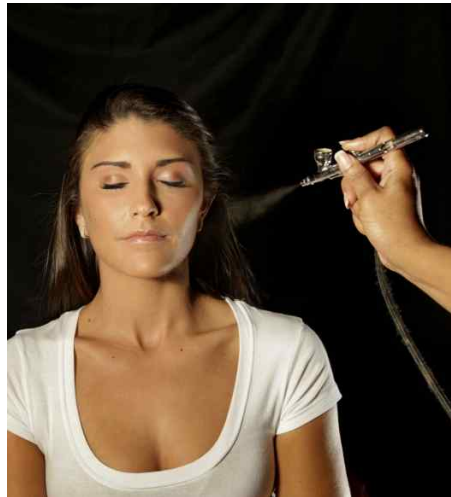
비즈(그림 20) 등의 다양한 재료의 사용으로 표현과 발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오브제 기법에 활용 가능한 소재는 작가의 의도에 부합한다면 어떠한 것도 가능하며, 모든 사물을 제한 없이 부착하여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⁸⁶⁾ 이러한 오브제 기법이 아트 메이크업에 응용되어져 오브제의 조형적 영역과 메이크업 디자인 개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⁸⁷⁾

86) 천지연 외 8명, 전계서, p.236.

87) 유경주, 「아트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브제의 소재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26.



<그림 16> 페인팅 기법을 이용한 보디 페인팅
(출처-www.bodypainting-festival.com) (검색일: 2012.6.20)



<그림 17> 에어브러시 사용 이미지
(출처-http://pacificartistry.wordpress.com/tag/airbrush-makeup)
(검색일: 2012.6.20)



<그림 18> 금속을 사용한 메이크업

(출처-<http://www.permitidoparagarotas.com/2012/02/mais-makes-pro-carnaval.html>)

(검색일: 2012.6.20)



<그림 19> 꽃을 사용한 메이크업

(출처-<http://www.permitidoparagarotas.com/2012/02/mais-makes-pro-carnaval.html>)

(검색일: 2012.6.20)



<그림 20> 비즈를 사용한 메이크업

(출처-<http://www.permitidoparagarotas.com/2012/02/mais-makes-pro-carnaval.html>)

(검색일: 2012.6.20)

Ⅲ. 데페이즈망 기법과 라팔 올빈스키

1. 데페이즈망 표현기법과 초현실주의 작품

수지 개블릭(Suzi Gablik, 1934~)은 저서 「르네 마그리트, Rene Magritte」에서 초현실주의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은 구체적인 이미지로 특정지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사물의 사실적인 묘사와 더불어 사물을 전위, 전치 또는 병치시킴으로써 창출해내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다음의 8가지로 분류하였다.⁸⁸⁾

1) 고립 (Isolation)

고립은 두 개의 대상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조합되는 유형으로 데페이즈망의 전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⁸⁹⁾ 이 표현 방법에서는 어떤 사물을 원래 있던 환경에서 떼어내어 엉뚱한 장소에 놓거나 이질적인 사물들끼리 비합리적으로 만나게 한다.⁹⁰⁾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Un peu de l'âme des bandits」(그림 21)는 숲이 바라보이는 실내의 탁자 위에 풀 먹인 것의 나비넥타이가 바이올린을 떠받치고 있다. 여기서 르네 마그리트가 그린 바이올린은 엄밀히 말해 바이올린의 이미지일 뿐 우리가 막연히 사용하는 단어로서의 바이올린은 아니다.⁹¹⁾ 르네 마그리

88) 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르네 마그리트」, 서울: 시공사, 2000, p.129.

89) 강성주,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에 의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37.

90) 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전제서, p.111.

91) 김지영, 「데페이즈망 기법과 알레고리를 통한 회화의 표현방법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1.

트는 언어와 사물 사이의 불균형,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바이올린의 이미지를 본래의 역할에서 떠나게 하였다. 블라디미르 쿠시(Vladimir Kush, 1965~)의 작품에서도 고립에 해당하는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블라디미르 쿠시는 「Fashionable Bridge」(그림 22)에서 여성의 하이힐을 한적한 자연으로 이동시켜 원래 하이힐로써의 목적이 아닌 하나의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렇듯 대상의 고립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지식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브제의 관념과도 관계없는 무의식적 흐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림 21> 르네 마그리트, 「Un peu de l'âme des bandits」, 1960
(출처- 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르네 마그리트, p.116)



<그림 22> 블라디미르 쿠시, 「Fashionable Bridge」, 1960
(출처-<http://angelfishphotoshopblog.blogspot.com/2011/05/surrealism.html>)
(검색일: 2012.5.15)

2) 변형 (Modification)

데페이즈망 회화 속 변형이란 대상의 어떤 한 측면과 속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⁹²⁾ 즉, 특정 오브제와 정상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특성은 추가되고 오브제와 정상적으로 관련된 성질은 제거된다.⁹³⁾ 예를 들면 인간의 살이 나무나 돌로 변화되기도 하며, 새가 식물의 잎으로 변형되기도 한다.⁹⁴⁾ 르네 마그리트는 작품 속 모든 오브제들이 완전히 돌로 변하여 버리는 「Recollection of travels」(그림 23)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모든 사물을 생명 없는 기념비적 물체로 비활성화 하였다. 라팔 올빈스키도 마찬가지로 「Interactive displacement of manners」(그림 24)에서 새를 나무로 변형시켜 재질의 변화와 대상의 생동감을 동결해 묘한 분위기로 감상자를 낚설게 만들었다. 비슷한 예로 르네 마그리트의 「The nature graces」(그림 25)에서는 두 마리의 새가 식물의 잎으로 변했으며 라팔 올빈스키의 「Charismatic impulse」(그림 26)에서는 인간이 구름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듯 변형에서는 재질의 변화에서 오는 생경함, 그리고 움직임과 시간적 흐름이 동결된 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92) 김지영, 전계서, p.12.

93) 강성주, 전계서, p.38.

94) 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전계서, p.119.



<그림 23> 르네 마그리트,
「Recollection of travels」, 1955
(출처-<http://popsci.hankooki.com>)
(검색일:2012.5.13)



<그림 24> 라팔 올빈스키,
「Interactive displacement of
manners」, 2003
(출처- Lech Majewski, Rafal Olbinski
Women, p.15)



<그림 25> 르네 마그리트,
「The nature graces」, 1963
(출처-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르네 마그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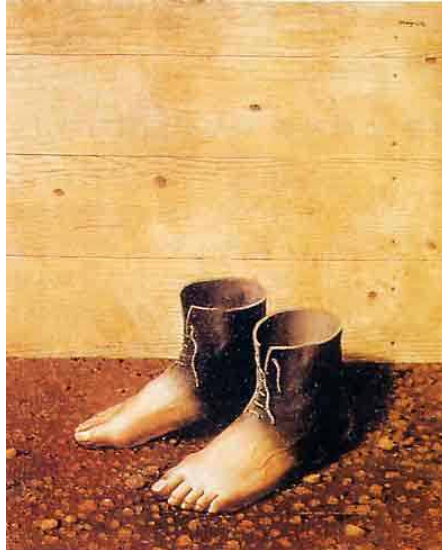
<그림 26> 라팔 올빈스키,
「Charismatic impulse」, 1996
(출처- Lech Majewski, Rafal Olbinski
Women, p.20)

3) 합성 (Hybridization)

합성은 두 개의 오브제의 결합으로 제3의 오브제를 만들어낸다.⁹⁵⁾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에서 그 예로 「Red model」(그림 27)을 살펴볼 수가 있다. 「Red model」은 한 쥘레의 구두가 그 끝 부분에서 발가락으로 변하는 장면이 표현되어있다. 이것은 구두를 그린 것인지 사람의 발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보통 구두를 사람의 발에 종속된 사물로 인식한다. 이것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사물들 간의 위계질서를 따지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지만 그림 속 새로운 오브제는 그것의 위계질서를 해체하고 임의적으로 형성된 기존의 의식을 벗어나 전혀 다른 가치로 생각하게 한다. 르네 마그리트가 내세운 데페이즈망 기법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⁹⁶⁾ 데페이즈망 여러 기법 중 합성은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예로는 블라디미르 쿠시의 「African Sonata」(그림 28)의 코끼리와 트럼펫의 합성, 「Treasure Island」(그림 29)에서 찾을 수 있는 나비의 날개와 동전의 합성이 있다. 라팔 올빈스키의 「Defense against banality」(그림 30)에서는 여성의 드레스와 우산의 합성, 「Conspiracy of choices」(그림 31)에서는 여성의 드레스와 식탁의 합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듯 합성에서는 새로운 사물들 간의 결합으로 인간의 시각을 공격함으로써 그 허를 찌르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일깨워 준다.

95) 강성주, 전제서, p.38.

96) 노성두외, 「노성두, 이주헌의 명화 읽기」, 한길아트, 1988, p.470.



<그림 27> 르네 마그리트, 「Red Model」, 1935
 (출처- 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르네 마그리트)



<그림 28> 블라디미르 쿠시,
 「African Sonata」
 (출처-<http://blog.daum.net/seaworld1234/6933638>) (검색일: 2012.5.5)



<그림 29> 블라디미르 쿠시,
 「Treasure Island」
 (출처-<http://blog.daum.net/seaworld1234/6933638>) (검색일: 2012.5.5)



<그림 30> 라팔 올빈스키, 「Defense against banality」
(출처- Lech Majewski, Rafal Olbinski Women, p.30)



<그림 31> 라팔 올빈스키, 「Conspiracy of choices」
(출처- Lech Majewski, Rafal Olbinski Women, p.56)

4) 크기의 변화 (A Changing in Scale)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면, 폭, 높이, 깊이가 있다.⁹⁷⁾ 이 요소의 변화는 여러 가지 부조화를 창출한다.⁹⁸⁾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일상적인 크기를 바꾸는 것은 르네 마그리트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 구성방식이다. 그는 확대와 축소로 일반적인 비례를 깨뜨림으로서 감상자로 하여금 심리적 당혹감과 놀라움을 느끼게 한다.⁹⁹⁾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중 「The Tomb of The Wrestlers」(그림 32), 「The Listening Room」(그림 33)이 대표적이다. 이 작품에서는 사과가 방을 가득 채우고 있다. 사과와 방 두 물체의 크기 간 상호관계를 뒤바꿈으로써 시각적인 맥락을 다시 쓴다. 또 다른 예로는 블라디미르 쿠시의 「Eye of the Needle」(그림 34)과 「Horn of Babel」(그림 35)이 있다. 「Eye of the Needle」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다. 실제로 작품 속에서 바늘구멍이 낙타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 작품 속에서 낙타와 바늘의 일반적인 상호 비례적인 크기는 깨졌으며 작가에 의해 다시 쓰였다. 이렇듯 일상적인 크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이미지 구성을 할 수 있다.

97) 김춘일, 박남희, 「조형의 기초와 분석」, 서울: 미진사, 1991, p.82.

98) 강성주, 전개서, p.39.

99) 김지영, 전개서, p.13.



<그림 32> 르네 마그리트,
「The Tomb of The Wrestlers」, 1960
(출처- 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르네 마그리트)



<그림 33> 르네 마그리트,
「The Listening Room」, 1959
(출처- 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르네 마그리트)



<그림 34> 블라디미르 쿠시,
「Eye of the Needle」
(출처-<http://blog.daum.net/seaworld1234/6933638>) (검색일: 2012.5.5)



<그림 35> 블라디미르 쿠시,
「Horn of Babel」
(출처-<http://blog.daum.net/seaworld1234/6933638>) (검색일: 2012.5.5)

5) 모순적 이미지

(The Provocation of Accidental Encounter)

모순적 이미지는 우연한 만남의 발생으로 인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시각적인 충격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모순적 이미지에서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각의 물체의 존재를 보다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¹⁰⁰⁾ 르네 마그리트의 「The Battle Of The Argonne」(그림 36)에서는 바위와 구름이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물들을 같은 공간에서 배치하여 무질서를 통한 신비감을 조성한다.¹⁰¹⁾ 또한 고정되거나 확정된 장소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로 붕 뜨고 있는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지 혹은 단순히 공간속에 일시 정지해 있는지 확신 할 수 없어 우리의 공간감각을 혼란시키고 있다. 이 기법이 활용된 또 다른 작품으로 르네 마그리트의 「Castle in the pyrenees」(그림 37)와 라팔 올빈스키의 「Don Carlos」(그림 38)가 있다. 이 두 작품은 구도 배치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종 비교 대상이 된다. 라팔 올빈스키는 이 작품 속에 Don Carlos 오페라 내용과 결부시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요소들을 숨겨 놓았다.¹⁰²⁾ 거대한 머리는 펠리프 2세로 스페인의 왕을 상징하며, 왕관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건물들은 펠리프 2세가 지은 마드리드 근처의 에스코리알¹⁰³⁾을 나타낸다. 라팔 올빈스키는 그 외 「Hide and Seek」(그림 39)에서 집과 하늘의 만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듯 모순적 이미지에서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만나기 힘든 사물을 상호 배치하여 감상자에게 신비함을 준다.

100) 김지영, 전계서, p.14.

101) 상계서.

102) Jerzy Markiewicz, 「Olbinski and the Opera」, Hudson Hills Press, New York and Manchester, 2003,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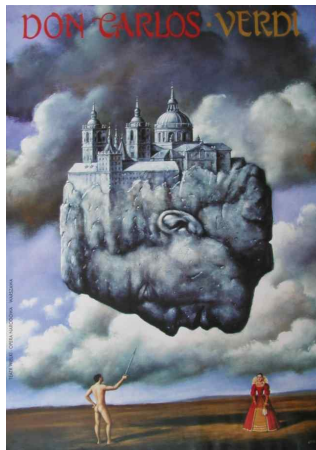
103) 마드리드 근교에 있는 건축물; 왕궁, 역대 왕의 묘소, 예배당, 수도원 등이 있다.



<그림 36> 르네 마그리트,
 「The Battle Of The Argonne」
 (출처- 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르네 마그리트)



<그림 37> 르네 마그리트,
 「Castle in the pyrenees」
 (출처- 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르네 마그리트)



<그림 38> 라팔 올빈스키,
 「DON CARLOS」
 (출처- Lech Majewski,
 Rafal Olbinski Women,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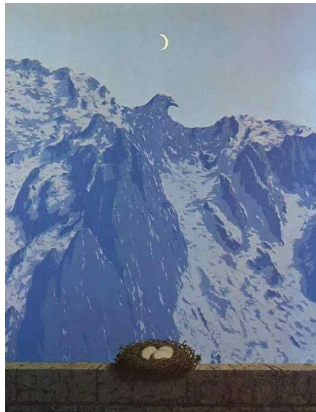
<그림 39> 라팔 올빈스키,
 「Hide and Seek」, 2004
 (출처- Lech Majewski,
 Rafal Olbinski Women, p.85)

6) 이중 이미지 (Double Image)

이중 이미지는 시각적 동음이의어 형태로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져 있는 효과가 나는 표현 기법이다. 관람자는 하나의 화면에 숨겨져 있는 다른 이미지를 발견할 때 착시의 신기한 세계를 경험한다.¹⁰⁴⁾ 이중 이미지 기법이 활용된 작품에서는 주제와 배경이 분리되지 않은 채 공간 관계가 애매하고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서로 겹쳐진다. 그 예로는 르네 마그리트의 「The domain of Arnheim」(그림 40), 「The Seducer」(그림 41)등의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들에서 르네 마그리트는 하나의 사물이 동시에 두 개의 사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산이 새로, 바다가 배의 형태를 취하도록 표현하였다. 이중 이미지 기법이 나타난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을 살펴보면 「Iris」(그림 42)가 있다. 라팔 올빈스키는 「Iris」에서 하프 속에 여성의 얼굴을 중첩시키고, 하프의 현을 여성의 머리로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관람자는 여성의 옆모습과 하프라는 이중 이미지를 경험하게 된다. 또 「SAMSON AND DALILA」(그림 43)에서도 이 기법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라팔 올빈스키는 밝고 어두운 데릴라의 두 얼굴을 표현하였다. 밝은 얼굴에서 그녀는 강한 히브리인을 사랑하는 체 하지만 어두운 면은 그녀의 배신으로 머리가 잘려나간 그의 실패 원인을 표현하고 있다.¹⁰⁵⁾ 이렇듯 이중 이미지 기법으로 그려진 작품 속에는 두 가지의 영상을 찾을 수 있어 감상자로 하여금 시각적 혼란을 주고 있다.

104) 강성주, 전계서, p.39.

105) Jerzy Markiewicz, 전계서, p.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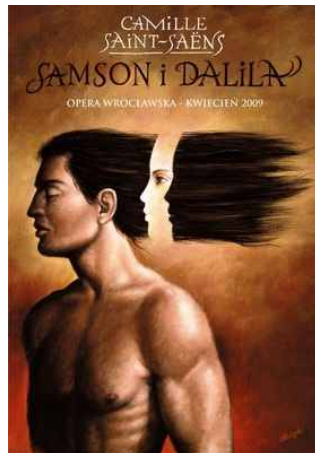
<그림 40> 르네 마그리트,
「The domain of Arnheim」, 1962
(출처- 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르네 마그리트)



<그림 41> 르네 마그리트,
「The Seducer」, 1950
(출처- 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르네 마그리트)



<그림 42> 라팔 올빈스키, 「Iris」, 2005
(출처- Lech Majewski, Rafal Olbinski Women,
p.166)



<그림 43> 라팔 올빈스키,
「SAMSON AND DALILA」
(출처- Jerzy Markiewicz,
Olbinski and the Opera, p.74)

7) 역설 (Paradox)

역설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물이 한 그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역설은 인간 사유의 문법, 즉 논리를 깨는데 있으며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불가능한 것을 그림 속에 나타낸다. 데페이즈망 기법 중 역설은 유리잔과 우산의 미묘하게 균형 잡힌 모순에서처럼 지적 반(反)개념을 사용한다.¹⁰⁶⁾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 중 「Hegel's holiday」(그림 44)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르네 마그리트는 이 작품에서 펴진 우산의 꼭대기에 놓여있는 한 잔의 물을 이미지로 택하여 물을 거부하는 우산의 기능적 측면과 물을 담은 컵의 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상호 거리가 먼 두 개의 사물을 접근 시킬 때 두 사물의 관계가 이질적인 것일수록 이미지는 강력해지며, 한 층 더 감동적인 힘과 시적 현실성을 띄게 된다.¹⁰⁷⁾

라팔 올빈스키는 「THE BALLAD OF BABY DOE」(그림 45)에서 베이비도와 테이버의 부인 어거스트를 한 여성 안에 표현하였다. 그녀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늙은 꼬추인데, 그녀의 무거운 짐이 다름 아닌 아름답고 젊은 여자인 베이비도의 얼굴이다.¹⁰⁸⁾ 이 작품은 르네 마그리트의 「Hegel's holiday」와 비슷한 표현기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논리를 깨고 있지만 미묘하게 균형이 잡힌 젊은 여자의 얼굴과 늙은 노인의 구부러진 등은 데페이즈망 기법 중 '역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역설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가진 오브제의 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106) 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전계서, p.119.

107) H.H 애너슨, 이영철 외 역, 「현대 미술의 역사」, 한국 색채 문화사, 1990, p.184.

108) Jerzy Markiewicz, 전계서, p.76.



<그림 44> 르네 마그리트,
 「Hegel's holiday」, 1958
 (출처- 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르네 마그리트)



<그림 45> 라팔 올빈스키,
 「THE BALLAD OF BABY DOE」
 (출처- Lech Majewski,
 Rafal Olbinski Women)

8) 개념의 양극화 (Conceptual Bipolarity)

개념의 양극화는 두 개의 상황을 하나의 시점에서 관찰하고 표현하는 기법이다. 개념의 양극화에서는 서로 다른 공간과 시간이 한 작품 안에서 공존한다.¹⁰⁹⁾ 르네 마그리트의 「Le plagiat」(그림 46)을 보면 실내의 탁자 위에 위치한 꽃의 내부는 외부와 내부의 풍경을 연결을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¹¹⁰⁾ 이로써 관람자는 한 작품 속에서 두 개의 공간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이 공존하는 작품이 많은데 「Natalia as Tosca」(그림 47)에서는 ‘낮과 밤’이라는 두 가지의 시간대가 관찰된다. 이 시간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 여성의 드레스 내부가 차용된다. 비슷한 예로 「Midsummer marriage」(그림 48)가 있다. 이 작품은 파란 하늘이 보이는 낮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의 드레스 내부에서는 시간대가 밤으로 변화한다. 「Tentative intimacy」(그림 49)에서는 그녀의 내부에서 다른 시간이 연출되고 「Complexity of emblematic episode」(그림 50)에서는 우산의 내부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듯 개념의 양극화에서는 두 개의 시공간을 한 작품 안에 공존시킴으로써 이미지와 리얼리티간의 혼돈을 유발하고 있다.

109) Robert Hughes, 최기득 역, 「새로움의 충격」, 서울: 미진사, 1993, p.230.

110) 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전개서, p.129.



<그림 46> 르네 마그리트,
「Le plagiat」, 1960
(출처- 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르네 마그리트)



<그림 47> 라팔 올빈스키,
「Natalia as Tosca」, 2003
(출처- Lech Majewski, Rafal Olbinski Women, p.91)



<그림 48> 라팔 올빈스키, 「Midsummer marriage」, 2000
(출처- Lech Majewski, Rafal Olbinski Women, p.19)



<그림 49> 라팔 올빈스키,
「Tentative intimacy」, 2001
(출처- Lech Majewski, Rafal Olbinski
Women, p.83)



<그림 50> 라팔 올빈스키,
「Complexity of emblematic episode」, 2001
(출처- Lech Majewski, Rafal Olbinski Women,
p.51)

<표 1>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에 따른 초현실주의 작품

표현기법	작가	특징	르네 마그리트		블라디미르 쿠시		라팔 올빈스키				
고립		오브제가 원래 있던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역할을 하는 것									
변형		오브제의 속성, 재질의 변경									
합성		두 개의 오브제의 결합									
크기 변화		일반 적인 비례를 깨뜨리는 오브제의 확대와 축소									
모순적 이미지		서로 연관이 없는 오브제와의 만남									
이중 이미지		주제와 배경이 겹쳐져서 표현, 이중이미지 효과									
역설		역설적인 두 오브제의 양립									
개념의 양극화		두 개의 시 공간을 하나의 시점에서 관찰, 표현									

2. 라팔 올빈스키(Rafal Olbinski)

1) 라팔 올빈스키

라팔 올빈스키는 1945년 폴란드의 남부도시 키엘체(Kielce)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¹¹¹⁾ 중산층의 집에서 태어나 문학적 전통이 강한 일류 고등학교를 다니며 작가가 되기 위해 많은 글을 썼다.¹¹²⁾ 그는 바르샤바 공과대학 (Warsaw University of Technology)의 건축과에 입학하여 자신의 젊은 시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브루노 슐츠(Bruno Schulz, 1892~1942)를 알게 된다. 그의 글과 그림은 올빈스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특히 사물을 보는 브루노 슐츠의 비뿔어진 시각은 라팔 올빈스키의 초현실주의적 작품성향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화, 연극, 디자인, 아트 등 다양한 계통의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그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라팔 올빈스키는 비록 건축을 공부했지만, 포스터 일러스트레이터로 많이 활동하였다.¹¹³⁾ 그 배경에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폴란드의 포스터 시장이 크게 발달하기 시작한데 있다. 그 시기의 폴란드의 모든 벽, 담장, 공공장소는 포스터로 도배되었고 학생부터 지성인들까지 전 국민적으로 포스터에 열광하였다. 신문 'Zycie Warszawy'에서는 이 달의 베스트 포스터를 뽑아 상을 주었는데 1등에 당선되면 신문 첫 장에 작품과 함께 작가 이름을 크게 실어주었다. 이것은 라팔 올빈

111) Lech Majewski, 「Rafal Olbinski Women」, Hudson Hills Press, New York and Manchester, 2005, p.149.

112) 상계서, p.150.

113) Richard Wilde, 「Olbinski posters for Performing Arts」, Hudson Hills Press, New York and Manchester, 2004, p.7.

스키를 포함한 젊은 작가들에게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꿈을 실어주었고 그를 포스터 일러스트레이터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¹¹⁴⁾ 그는 1981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후에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초현실주의 화가로 자리를 잡고 그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로 Times, Newsweek, Playboy, The New York Times 등 세계적인 유명 잡지의 표지화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에 등장하는 오브제는 그 자체로서의 변형이 적고 은유와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 관람자의 입장에서 해석할 여지가 많다. 이것은 1981년 미국으로 이주한 라팔 올빈스키가 예술영역의 성적표현에 대한 엄격한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기법을 택하면서 형성되었다.¹¹⁵⁾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에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비해 사람, 특히 여성이 많이 등장하여 메이크업과 연관해서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 제작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작품 선정

앞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8가지 데페이즈망 기법을 분석하여 ‘변형’, ‘합성’, ‘역설’과 ‘개념의 양극화’에 해당하는 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 4가지 기법은 오브제의 속성이나 재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초현실주의적 표현을 할 수 있다. ‘이중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배경과 주제의 중첩된 표현, 재질의 변경 등으로 초현실적 표현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메이크업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변형’, ‘합성’, ‘역설’과 ‘개념의 양극화’에 해당하는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을 8점 선정하였다. 수많은 이미지들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최

114) Lech Majewski, 전계서, p.153.


115) 상계서.

종적으로 선택되어진 이미지는 각각이 갖고 있는 조형적인 형태와 색채 등 디자인적인 요소에 의한 즉각적인 반응과 선택으로 이루어졌다.¹¹⁶⁾ 이때의 행위는 무의식에서 비롯된 즉흥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사물을 보는 시각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듯이¹¹⁷⁾ 어떤 이미지를 지각한다는 것은 이미 시각적인 경험이 이뤄진 후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기에 본 작품에 수집된 모든 이미지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기호로 추출된 것으로 이러한 이미지들은 색채와 구성에서 어느 정도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선정된 작품은 <표 2>와 같다.

116) 김지영, 전계서, p.19.

117) John Berger, 「Ways of Seeing」, 서울: 동문선, 1990, p.24.

<표 2> 작품제작에 활용 할 라팔 올빈스키의 이미지

구분	작품
변형	
합성	
역설	
개념의 양극화	


3) 작품 제작 프로그램

(1) 어도비 포토샵 (Adobe Photoshop)의 구성과 활용

① 어도비 포토샵의 툴(Tool) 구성

어도비 포토샵의 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영역 선택 툴’로 사진보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툴이다. 둘째, ‘채색 툴’은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툴로써 브러시 툴을 포함한다. 셋째, ‘보조 편집 툴’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크기 및 색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인 툴의 구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어도비 포토샵의 툴(Tool)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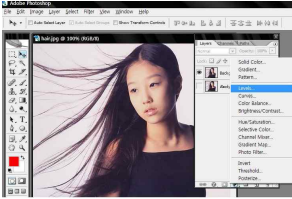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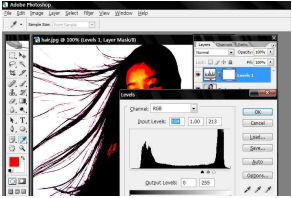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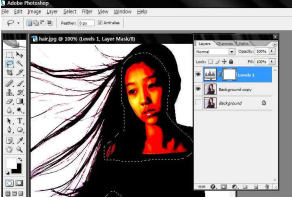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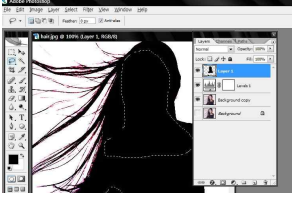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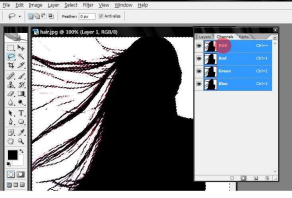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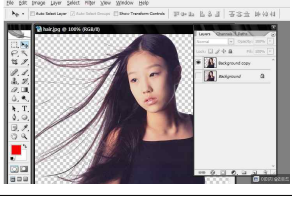
구분	구성	세부 툴 구성		
영역 선택 툴	선택 툴 ( Marquee Tool)	이동 툴 ( Move Tool)	올가미 툴 ( Lasso Tool)	
	마술봉 툴 ( Magic Wand Tool)	크롭 툴 ( Crop Tool)		
채색 툴	브러시 툴 ( Brush Tool)	지우개 툴 ( Eraser Tool)	도장 툴 ( Stamp Tool)	
	블러 툴 ( Blur Tool)	닷지 툴 ( Dodge Tool)		
보조 편집 툴	스포이트 툴 ( Eyedropper Tool)	돋보기 툴 ( Zoom Tool)	손 툴 ( Hand Tool)	

② 어도비 포토샵(Adobe Photoshop)의 활용

가. 이미지 자르기

이미지 자르기는 <표4>와 같이 이미지를 배경으로부터 분리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표 4> 이미지 자르기

순서	방법	사 진	방 법
1			이미지를 불러오고, 배경 레이어(layer)를 드래그 하여 복제한다.
2			레이어 팔레트 하단의 메뉴 중 Levels를 선택하고, Levels를 조정해 배경과 이미지의 대비를 강화시킨다.
3			올가미 툴을 이용해 얼굴부분을 선택한다.
4			색상 도구상자를 기본(흑/백)으로 설정하고 선택한 영역을 검은색으로 채운다.
5			Channels 팔레트로 가서 RGB채널을 클릭하고, 레이어 팔레트로 가서 백그라운드를 복사한 레이어를 작업 레이어로 선택하고 Delete 키를 눌러 배경의 색상을 제거한다.
6			작업을 위해 생성하였던 빈 레이어와 Levels 효과에 의해 생성된 레이어를 휴지통으로 버리면 선택영역을 배경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http://cafe.naver.com/motiontree/710>) (검색일:2012.5.14)

나. 이미지 합성

이미지 합성은 <표5>와 같이 두 가지 이미지를 합성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는 기능이다.

<표 5> 이미지 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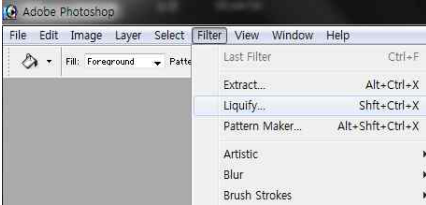


순서	방법	사 진	방 법
1			<p>합성 할 두 이미지를 불러오고, <표4>를 참고하여 합성할 개체를 배경에서 분리한다.</p>
2			<p>이동 툴을 이용하여 분리한 개체를 새로운 배경 이미지로 이동시킨다.</p>

(이미지 출처-<http://blog.naver.com/chick5540142709419>) (검색일:2012.5.14)

다. 이미지 변형과 왜곡

포토샵에 있는 유용한 필터 기능 중 메이크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픽셀 유동화 기능을 이용하여 이미지에 변형을 줄 수 있다. <표6>과 같이 V라인 턱 선을 만든다거나 이목구비 수정을 할 때 용이하다.

<표 6> 이미지 변형과 왜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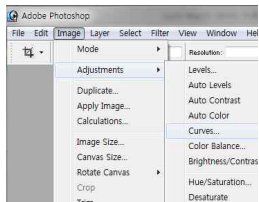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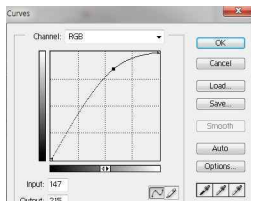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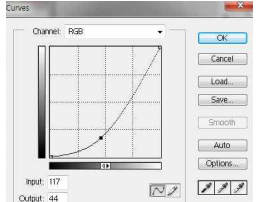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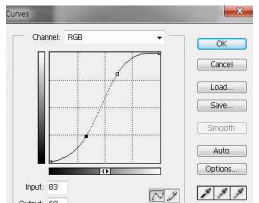
순서	방법	사 진	방 법
1			이미지를 불러온다.
2			필터에서 픽셀 유동화 기능을 선택한다.
3			왼쪽 메뉴의 첫 번째에 있는 손가락 모양의 Forward Wrap Tool을 사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문질러 준다.
4			원하는 이미지로 변형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http://blog.naver.com/chick5540142709419>) (검색일:2012.5.14)

라. 이미지 색상 조절

이 작업은 명도와 채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다(표 7).

<표 7> 이미지 색상 조절

순서	방법	사 진	방 법
1		 	이미지를 불러온다.
2		 	상단의 메뉴에서 Image>Adjustment>Curves를 선택한다. 위쪽으로 포물선을 그리게 되면 이미지가 화사해진다.
3		 	아래쪽으로 포물선을 그리게 되면 이미지가 어두워진다.
4		 	포물선이 S자 형태가 되면 대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미지 출처 - <http://cafe.naver.com/motiontree/708>) (검색일:2012.5.14)

IV. 작품 제작

1. 제작의도

본 연구는 데페이즈망 기법으로 제작된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 8점을 활용하여 아트메이크업 작품 제작을 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고 그 캐릭터에 맞는 아트 메이크업을 제작한다.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오려 내거나 분해하고 형태를 변형시켜 주제에 맞게 표현하며 초현실주의의 많은 작가들처럼 이질적인 다른 이미지와 결합시킴으로써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낯선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도비 포토샵의 기능을 활용하여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하나의 아트 작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제 및 배경까지 설정하여 제작한다. 디자인 계획은 <표 8>과 같다. 작품 I은 ‘변형’, II, III은 ‘합성’의 기법으로 작품IV는 ‘역설’, 작품 V~VIII은 ‘개념의 양극화’에 해당하는 기법으로 제작한다.

<표 8> 데페이즈망 기법을 응용한 작품 디자인 계획

분류	구분	작품 주제	라팔 올빈스키 작품	디자인 스케치	색채	메이크업 재료
변형	죽음					수성컬러, 깃털, LED라이트
	합성	복수				유성컬러, 페인팅 브러시
합성	클럽에서 춤을				필베이스, 피그먼트, 페인팅 브러시	
	역설	한(恨)				유성컬러, 페인팅 브러시
개념의 양극화	도시의 여왕, 마블린 먼로				수성컬러, 페인팅 브러시, 인조속눈썹, 천	
	지킬 앤 하이드				수성컬러, 페인팅 브러시	
	우주에 떨어진 산타				크림 아이 새도, 페인팅 브러시	
	나에게로 오세요.				수성컬러, 페인팅 브러시	

2. 작품 제작

1) 작품 I - “죽음”

(1) 디자인 의도

작품 I 은 데페이즈망 기법 중 ‘변형’을 응용한 작품이며 주제는 “죽음”이다. 이 작품은 라팔 올빈스키의 「Interactive displacement of manners」를 재해석 하였다. 올빈스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무로 변한 새는 말을 타고 있는 여성에게 끌려가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 깃털을 모두 잃고 힘없이 끌려가는 새의 모습에 화려한 공작새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오색찬란한 깃털은 하나 둘씩 떨어지고 빼만 앙상히 남은 늙은 공작새가 죽음의 신에게 끌려가고 있다. 그렇게 화려했던 공작새도 죽음 앞에서는 도리가 없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디자인 스케치는 <표 9>와 같다.

(2) 제작 방법

화려한 공작새를 표현하기 위하여 맥 스트로브 크림과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5:5로 섞어 브러시로 광이 나는 피부 표현을 하였다. 그 뒤 형광 빛이 도는 다양한 색감의 가루 채도를 사용하여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광택이 나는 보라색 립 메이크업을 하였다. 광택을 강조하기 위하여 투명 립글로스를 더해주었다. 눈썹은 왁스로 가리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상승 형으로 그려주어 날카로운 새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최대한 턱 라인에 음영을 주어 뾰족한 얼굴형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다양한 깃털과 LED 조명을 이용해 공작새의 깃털을 표현하였다(그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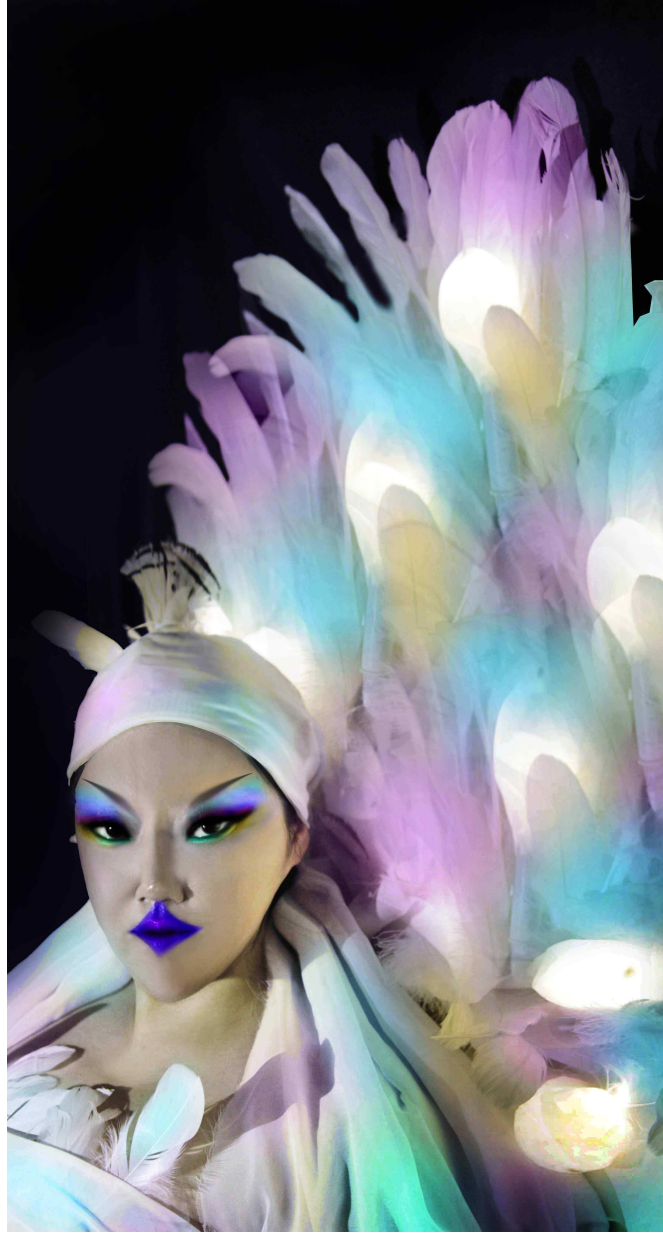
포토샵 기능은 젊고 아름다운 공작새를 늙은 공작새로 바꾸기 위하여

‘닷지 툴’과 ‘번 툴’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명암효과를 주어 얼굴에 주름을 표현하였다. ‘픽셀 유동화’ 기능을 활용하여 날렵했던 얼굴형에서 광대, 볼, 턱 등이 늘어진 얼굴형으로 바꾸어 주었으며 ‘이미지 색상 조절’ 기능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채도를 낮추어 주었다. 화려한 아이섀도우와 립의 색감을 줄여 낮고 힘 빠진 공작새를 형상화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미지 자르기’와 ‘이미지 합성’ 기법을 이용하여 공작새의 얼굴을 나무와 합성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그림 52).

<표 9> 작품 I 디자인 이미지



주제	죽음
테페이스망 분류	변형
재료	필 베이스, 리퀴드 파운데이션, 수성 컬러, 가루 새도, 깃털, LED 라이트
포토샵 기능	닷지 툴, 번 툴, 픽셀 유동화, 이미지 색상 조절
색상 배색	



<그림 51> 작품 I - 메이크업



<그림 52> 작품 I

2) 작품 II - “복수”

(1) 디자인 의도

작품 II은 데페이즈망 기법 중 ‘합성’을 응용한 작품이며 주제는 “복수”이다. 이 작품은 라팔 올빈스키의 「Defense against banality」을 재해석 하였다.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남성에게 의해 순결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본인은 이 상황을 역전시켜 화가 난 우산여신이 남성에게 벼락을 내리는 설정으로 바꾸어 화면구성을 해보았다. 그녀의 손과 우산에서 쉴 새 없이 번개가 몰아친다. 남자는 그녀의 분노를 고스란히 느끼며 번개와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표 10). 또한 배경에 비처럼 쏟아지는 우산 여신은 르네 마그리트의 「겨울비」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하였으며 작품 속 남성에게 중압감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제작 방법

우산 여신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표현하기 위해 피부는 크림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새미 매트하게 표현하였으며 빨간색 유성 컬러를 사용해 강렬한 아이 메이크업을 하였다. 검은색 젤 아이라이너로 라인을 길게 빼주어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하였다. 립 칼라는 무광의 검은색으로 표현하여 그녀의 분노를 표현하였다(그림 53).

우산 여신의 헤어는 번개의 이미지와 동일하게 포토샵 ‘이미지 자유변형’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으며, ‘이미지 왜곡’을 통해 그녀의 눈썹과 눈꼬리를 더욱 올려주었다. 얼굴과 배경을 합성하기 위해 포토샵의 ‘이미지 자르기’와 ‘이미지 합성’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우산 여신의 얼굴을 조금 더 확대하며 그녀의 표정과 메이크업이 잘 보이게 하였으며

상호 간 비율을 깨뜨리는 데페이즈망의 특성 ‘크기변화’도 적용하여 초
현실주의적 표현을 하였다(그림 54).

<표 10> 작품Ⅱ- 디자인 이미지



주제	복수
테페이지망 분류	합성
재료	크림 파운데이션, 유성 컬러, 젤 아이라이너, 메이크업 브러시
포토샵 기능	이미지 자르기, 이미지 합성, 이미지 자유변형하기
색상 배색	



<그림 53> 작품 II - 메이크업



<그림 54> 작품 II

3) 작품 Ⅲ - “클럽에서 춤을”

(1) 디자인 의도

작품 Ⅲ은 데페이즈망 기법 중 ‘합성’을 응용한 작품이며 주제는 “클럽에서 춤을”이다. 이 작품은 라팔 올빈스키의 「Conspiracy of choices」를 재해석 하였다.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자는 발레리나로 그녀의 발레복 대신에 테이블이 합성되어있다. 정적이며 고독한 환경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의 작품 속 발레리나와는 대조적으로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춤추고 있는 현대 여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반짝이는 스팅글 의상을 입고 화려한 펠 새도를 한 여성은 토슈즈 대신 킬 힐을 신고 춤을 춘다. 발레리나의 식탁에 오른 주전자와 찻잔과 다르게 그녀의 클럽의상 위에는 각종 알코올 음료들이 즐비하다. 디자인 스케치는 <표 11>과 같다.

(2) 제작 방법

하이라이트 펠 파우더를 얼굴 전반적으로 발라 광이 나는 피부표현을 하였다. 아이 홀 부분에 흰색 크림 타입의 아이 새도를 베이스로 퍼 발라주고 화사한 느낌의 블루 새도를 브러시를 이용해 발라준다. 입자가 굵은 피그먼트를 사용하여 조명 아래서 빛나 보일 수 있도록 메이크업 하였다. 글리터 펠 파우더를 눈가 앞머리와 눈썹 뼈있는 부분에 더하여 더욱 반짝이고 깔끔한 느낌을 연출하였다.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여 라인을 그리고 마스카라를 소량 발라 주었다. 피치 계열의 립 칼라를 선택하여 글로시하게 표현하였다. 토끼 귀 모양의 헤어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어 그녀의 흥겨움을 표현하였다(그림 55).

춤을 추는 여성의 상반신과 테이블, 킬 힐을 신은 다리를 합성하기 위

해 포토샵의 ‘이미지 자르기’와 ‘이미지 합성’ 기법을 사용하였다. 조명 효과가 있는 배경 이미지를 합성하여 클럽 분위기를 더하였다(그림 56).

<표 11> 작품Ⅲ- 디자인 이미지



주제	클럽에서 춤을
테페이지망 분류	합성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필 파우더, 피그먼트
포토샵 기능	이미지 자르기, 이미지 합성, 이미지 변형과 왜곡, 이미지 색상 조절
색상 배색	



<그림 55> 작품 III- 메이크업



<그림 56> 작품 III

4) 작품 IV - “한(恨)”

(1) 디자인 의도

작품 IV은 데페이즈망 기법 중 ‘역설’을 응용한 작품이며 주제는 “한(恨)”이다. 이 작품은 라팔 올빈스키의 「THE BALLAD OF BABY DOE」를 재해석 하였다. 라팔 올빈스키의 이 작품에서는 늙은 꼽추인 여성이 턱을 괴고 앉아있다. 그녀의 등에는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이 합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꼽추의 등 같기도 하다. 이 작품은 1880년 미국 콜로라도 주, 리드 빌과 워싱턴을 배경으로 테이버와 그의 부인 어거스트 그리고 연인 엘리자베스 베이비 도(BABY DOE)의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다. 테이버는 그의 정부인 어거스트를 버리고 매혹적인 베이비 도와 바람을 핀다. 이에 어거스트의 한(恨)을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여성이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라는 속담이 있다. 어거스트는 죽어서도 테이버를 속박하는 무거운 짐이 된다. 디자인 스케치는 <표 12>와 같다.

(2) 제작 방법

늙은 어거스트를 표현하기 위하여 노역 분장을 하였다. 눈가와 볼 입 주변에 유성 칼라를 사용해 주름을 그렸다. 어두운 칼라와 밝은 칼라를 교차 사용하여 색의 대비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해주어 미간, 이마, 입 주변 등에 주름을 만들어 주었다. 헤어와 눈썹에 하얀색 유성 칼라를 칫솔에 묻혀 희끗희끗한 머리를 표현해 주었다. 피부는 전반적으로 한 톤 어둡게 하였으며 기미와 잡티를 그려 노화된 피부를 표현하였다(그림 57).

남성의 등에 늙은 어거스트의 얼굴을 합성하기 위해 포토샵의 ‘이미지

자르기'와 '이미지 합성' 기법을 활용하였고, '이미지 색상조절' 기능을 사용해 남성의 옷과 비슷한 톤을 맞추어 주었다. 의자 대신에 공동묘지의 묘비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하여 스토리를 구성하였다(그림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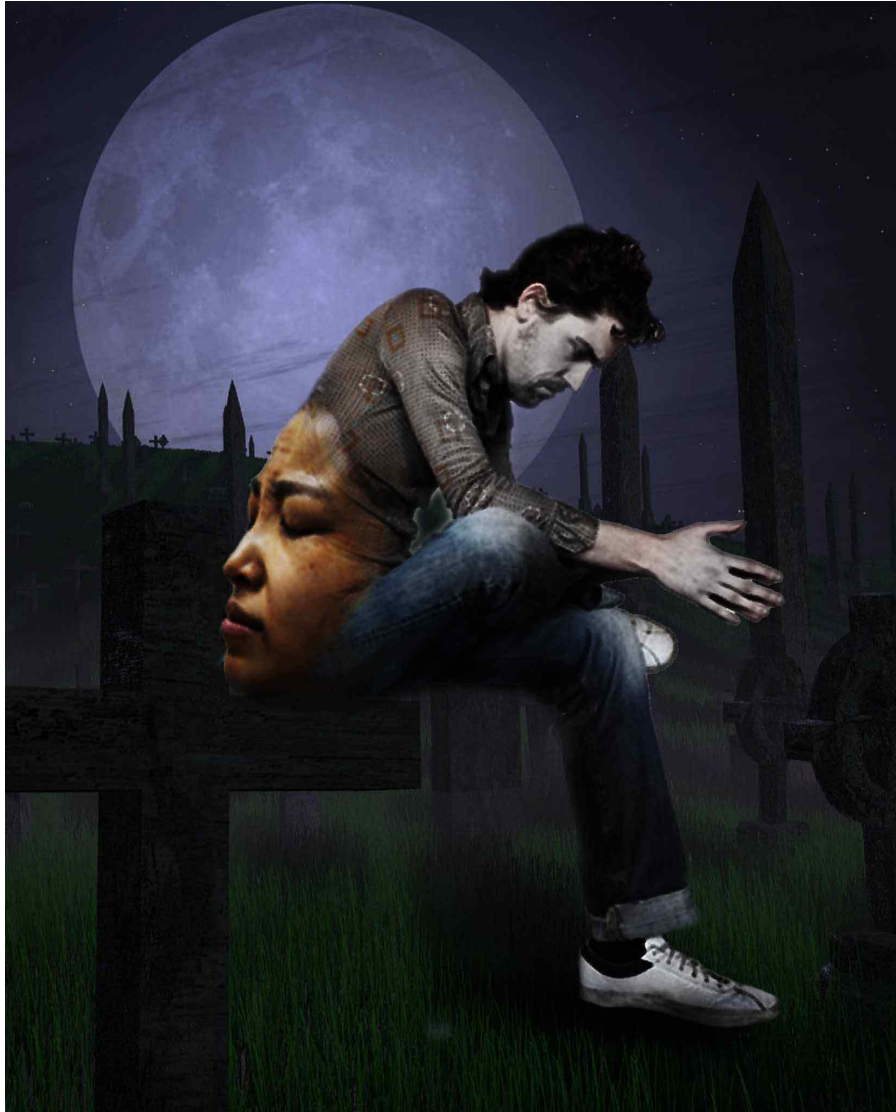
<표 12> 작품Ⅳ 디자인 이미지



주제	한(恨)
테페이지망 분류	역설
재료	유성칼라, 메이크업 브러시, 칫솔
포토샵 기능	이미지 자르기, 이미지 합성, 이미지 색상 조절
색상 배색	



<그림 57> 작품 IV- 메이크업



<그림 58> 작품 IV

5) 작품 V - “도시의 여왕, 마를린 먼로”

(1) 디자인 의도

작품 V은 데페이즈망 기법 중 ‘개념의 양극화’를 응용한 작품이며 주제는 “도시의 여왕, 마를린 먼로”이다. 이 작품은 라팔 올빈스키의 「Tentative intimacy」를 재해석 하였다.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에서는 한 여성이 하늘에서 그녀를 타고 있고, 그 밑으로는 도시의 윤곽이 살짝 보인다.

시카고에 설치된 마를린 먼로 동상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빈축을 사고 있지만 사실은 그 동상으로 인해 시카고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마를린 먼로 동상은 이미 시카고를 대표하는 것들 중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마를린 먼로가 시카고를 장악하여 시카고를 대표하는 유명 빌딩들을 한 손에 쥐고 도시 위에서 유유히 그녀를 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 보았다. 디자인 스케치는 <표 13>과 같다.

(2) 제작 방법


펄 베이스와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5:5로 섞어 광이 나는 피부 표현을 하고, 마를린 먼로의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 깊은 아이 홀 메이크업을 하였다. 브러시를 사용해 아이 홀 부분을 그라데이션 시키고 홀 바로 밑 부분은 밝은 색감의 가루 타입의 섀도를 사용하여 대비를 주었다.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여 눈을 한층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광택이 나는 빨간색 립 칼라를 선택하여 섹시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볼 옆에 유성 칼라로 점을 표현해 마를린 먼로의 특징을 잘 살려 주었다(그림 59). 그녀의 특징적인 하얀색 드레스를 시폰 소재의 천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선풍기를 이용해 바람에 드레스자락이 날리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녀를 타고 있는 손과 다리를 합성하기 위해 활용한 포토샵 기법으로는 ‘이미지 자르기’와 ‘이미지 합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그녀가 쇼핑백처럼 들고 있는 도시의 빌딩들도 ‘이미지 합성’ 기법을 사용해 표현하였다(그림 60).

<표 13> 작품 V - 디자인 이미지



주제	도시의 여왕, 마블린 먼로
데페이즈망 분류	개념의 양극화
재료	유성칼라, 메이크업 브러시, 인조 속눈썹, 가루 새도
포토샵 기능	이미지 자르기, 이미지 합성
색상 배색	



<그림 59> 작품 V-메이크업



<그림 60> 작품 V

6) 작품 VI - “지킬 앤 하이드”

(1) 디자인 의도

작품 VI은 데페이즈망 기법 중 ‘개념의 양극화’를 응용한 작품이며 주제는 “지킬 앤 하이드”이다. 이 작품은 라팔 올빈스키의 「Natalia as Tosca」을 재해석 하였으며, 한 여성의 낮과 밤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작품에서 낮에는 여교수로 생활하고 밤에는 파티를 즐기는 이중적 모습을 표현해 보았다. 낮의 그녀는 머리가 아주 높게 변형되었다. 이는 교수의 지식의 양을 표현하며 밤의 그녀가 하고 있는 장미 머리장식은 그녀의 숨은 열정을 상징한다. 디자인 스케치는 <표 14>와 같다.

(2) 제작 방법

낮과 밤의 이중적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 낮의 그녀는 직선적이고 딱딱한 메이크업을 하였다. 눈썹은 각진 형으로 잡아 주었고, 광택이 없는 붉은 계열의 립스틱을 사용하여 건조하고 메마른 느낌을 주었다. 피부 표현도 파운데이션 후 파우더를 처리하여 전반적으로 매트한 느낌으로 연출하였다. 검은 빨데 안경을 착용하여 교수 캐릭터의 분위기를 살렸다(그림 61). 밤의 그녀는 실크 천으로 드레스를 제작하고 메이크업도 최대한 부드러우면서 화려하게 표현해 보았다. 입술 색깔은 드레스 색깔과 동일하게 퍼플로 맞추고 립글로스를 덧발라 주시한 느낌을 더해 주었으며, 속눈썹도 연장하여 조금 더 풍부한 그녀의 감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피부는 펄 베이스 제품과 파운데이션을 혼합하여 광이 나게 표현하여 낮의 그녀와 대비되게 하였다(그림 62).

포토샵 ‘이미지 왜곡과 변형’ 기법을 이용해 교수 캐릭터의 의상을 파

위 솔더 재킷으로 변형하였다. 또한 헤어스타일도 과장되게 부풀려 그녀의 높은 지식과 도도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파티를 즐기는 여성의 헤어에 빨간색 장미를 합성하여 위의 캐릭터와 대비를 시켰다. 두 여성을 하나로 합치고 낮과 밤이 공존하는 배경을 삽입하기 위해 포토샵 ‘이미지 자르기’ 기법과 ‘이미지 합성’ 기법을 사용하였다(그림 63).

<표 14> 작품 VI- 디자인 이미지



주제	지킬 앤 하이드
데페이즈망 분류	개념의 양극화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파우더, 립글로스, 크림 새도, 브러시
포토샵 기능	이미지 자르기, 이미지 합성, 이미지 변형과 왜곡
색상 배색	



<그림 61> 작품 VI-메이크업1



<그림 62> 작품 VI-메이크업2



<그림 63> 작품 VI

7) 작품 VII - “우주에 떨어진 산타”

(1) 디자인 의도

작품 VII은 데페이즈망 기법 중 ‘개념의 양극화’를 응용한 작품이다. 주제는 “우주에 떨어진 산타”로 이 작품은 라팔 올빈스키의 「Complexity of emblematic episode」를 재해석 하였다.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에서는 한 여성이 고독하게 우산 속을 응시하고 있으며 황량한 겨울 배경이 그녀의 쓸쓸함을 더해주고 있는 반면에, 즐거운 분위기의 겨울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캐릭터인 산타가 여름으로 간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어딘지 모를 우주 한복판에 떨어진 산타는 여름 색깔이 물씬 풍기는 연꽃잎 우산을 들고 개구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겨울에서 온 산타와 여름의 청개구리는 묘하게 어울려 두 개의 시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우주 속 반짝이는 별은 겨울에 내리는 함박눈과 같은 착시 효과를 준다. 디자인 스케치는 <표 15>와 같다.

(2) 제작 방법

순진하고 귀여운 산타를 연출하기 위해 투명한 피부 표현을 하였다. 파운데이션은 소량만 사용하고 컨실러를 이용해 최대한 피부의 잡티를 가려주었으며, 화이트 펄 색도를 사용하여 아이메이크업을 하고 펜슬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여 가볍게 눈매를 잡아 주었다. 분홍빛으로 볼티치를 주고 입술 중앙을 틴트로 살짝 물들여 수줍은 소녀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그림 64).

산타 모자는 포토샵 ‘이미지 합성’ 기능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연꽃잎 우산과 개구리는 포토샵 기능 중 ‘이미지 자르기’ 기법과 ‘이미지 합성’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그림 65).

<표 15> 작품Ⅶ- 디자인 이미지

	
주제	우주에 떨어진 산타
테페이지망 분류	개념의 양극화
재료	리퀴드 파운데이션, 컨실러, 펠 새도, 틴트
포토샵 기능	이미지 자르기, 이미지 합성
색상 배색	



<그림 64> 작품 VII-메이크업



<그림 65> 작품 VII

8) 작품 VIII - “나에게로 오세요.”

(1) 디자인 의도

작품 VIII은 데페이즈망 기법 중 ‘개념의 양극화’를 응용한 작품이며 주제는 “나에게로 오세요.”이다. 이 작품은 라팔 올빈스키의 「Midsummer marriage」를 재해석 하였다.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 속 여성은 본인에게 다가오는 남성에게 도도하게 등을 돌리고 있으며, 남성은 밧줄로 그녀에게 다가갈 길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이미지 속 여성의 미모가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사회적으로 외모지상주의 풍조가 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지기 위해 ‘달려라 하니’에 나오는 민들레를 형상화하여 캐릭터 화 시켜보았다. 살집이 크고 소위 ‘못생긴’ 그녀가 도망가려는 남성을 밧줄로 끌어당기는 설정이다. 디자인 스케치는 <표 16>과 같다.

(2) 제작 방법

민들레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입술을 아주 두껍게 표현하였다. 먼저 분홍색 립 라이너로 형태를 잡아준 뒤, 베이비 핑크 색을 채워주어 큰 입술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모델의 얼굴보다 한 톤 다운된 피부색감과 햇빛에 그을려 볼에 가득 생긴 주근깨를 함께 표현해 주었다. 또한 곱슬머리로 캐릭터의 특징을 살려주었으며 두꺼운 속눈썹을 붙여 과한 아이 메이크업을 하였다(그림66).

포토샵으로 턱살과 뺨살, 어깨선 등을 더욱 과장하여 캐릭터의 특징을 표현하였다. 이 때 사용한 기법으로는 ‘이미지 변형과 왜곡’이 있다. 또한 여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남성의 이미지도 포토샵의 ‘합성’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그림 67).

<표 16> 작품Ⅷ- 디자인 이미지



주제	나에게로 오세요.
테페이지망 분류	개념의 양극화
재료	인조 속눈썹, 유성칼라, 브러시
포토샵 기능	이미지 잘라내기, 이미지 합성, 이미지 왜곡과 변형
색상 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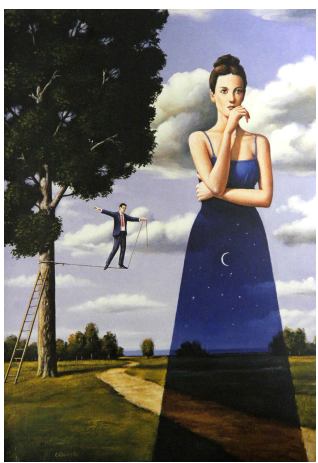



<그림 66> 작품 VIII-메이크업



<그림 67> 작품 VIII

<표 17>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과의 비교

라팔 올빈스키의 작품과의 비교							
작품 I		작품 II		작품 III		작품 IV	
라팔 올빈스키, 「Interactive displacement of manners」	본인 작, 「죽음」	라팔 올빈스키, 「Defense against banality」	본인 작, 「복수」	라팔 올빈스키, 「Conspiracy of choices」	본인 작, 「클럽에서 춤을」	라팔 올빈스키, 「THE BALLAD OF BABY DOE」	본인 작, 「한(恨)」
							
작품 V		작품 VI		작품 VII		작품 VIII	
라팔 올빈스키, 「Tentative intimacy」	본인 작, 「도시의 여왕, 마를린번로」	라팔 올빈스키, 「Natalia as Tosca」	본인 작, 「지킬 앤 하이드」	라팔 올빈스키, 「Complexity of emblematic episode」	본인 작, 「우주에 떨어진 산타」	라팔 올빈스키, 「Midsummer marriage」	본인 작, 「나에게로 오세요.」
							

V. 결 론

현대의 예술은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유기적인 결합으로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킨다. 메이크업 분야에 있어서도 미술 사조와 결합하여 작품 제작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아트메이크업은 예술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생각과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 전달 능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라팔 올빈스키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캐릭터와 스토리로 작품을 디자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작품을 제작하는데 있어 컴퓨터 그래픽인 어도비포토샵의 사용 전과 후를 비교 제시하여 그 활용범위를 알리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초현실주의의 개념 및 특징과 표현기법을 살펴보았으며, 그 중 데페이즈망 기법의 특징을 연구 범위로 하여 고립, 변형, 합성, 크기변화, 모순적 이미지, 이중이미지, 역설, 개념의 양극화로 분류하였다. 이 중 메이크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변형’, ‘합성’, ‘역설’과 ‘개념의 양극화’에 따른 이미지를 분석하여 작품화 하였다.

메이크업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품 I의 “죽음”은 데페이즈망 ‘변형’ 기법을 응용한 작품으로, 화려한 깃털을 잃은 늙은 공작새가 죽음의 여신에게 끌려가는 설정이다. 다양한 형광 빛 색감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하고 깃털과 LED 조명을 사용하여 화려한 공작새의 깃털을 표현하였다. 포토샵 작업을 통해 날렵한 얼굴선을 늘어지게 조정하고 색도의 채도를 떨어뜨려 힘이 빠진 공작새로 변화시켰다.

작품 II의 “복수”는 데페이즈망 ‘합성’ 기법을 응용한 작품으로, 화가 난 우산 여신이 남성에게 벼락을 내리는 설정으로 그녀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표현하기 위해 긴 아이라인과 빨간 색도, 무광의 검은색 립 칼라를

사용하였다. 이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얼굴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바꾸어 합성하여 그녀의 화난 얼굴이 더 잘 돋보일 수 있도록 작품 제작을 하였다.

작품Ⅲ의 “클럽에서 춤을”에서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스텁글 의상을 입고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을 표현하였으며 피그먼트를 사용하여 반짝거리는 아이메이크업을 하였다. 데페이즈망 기법 중 ‘합성’에 해당한다.

작품Ⅳ의 “한(恨)”은 데페이즈망 ‘역설’에 해당하는 기법을 응용한 것으로,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난 남편을 죽어서도 힘들게 하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늙은 여성을 나타내기 위해 눈가, 입, 볼 주변에 주름을 그려 넣었으며 눈썹과 머리도 흰색 유성 칼라를 이용해 희끗하게 표현하였다.

작품Ⅴ의 “도시의 여왕, 마를린 먼로”는 데페이즈망 기법 중 ‘개념의 양극화’를 사용한 것으로 마를린 먼로가 도시의 스카인 라인 위에서 그녀를 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먼로의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 깊은 아이 홀 메이크업을 하고 광택이 나는 빨간색 립 칼라를 선택하였다.

작품Ⅵ의 “지킬 앤 하이드”는 ‘개념의 양극화’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두 캐릭터의 메이크업 기법을 대비되게 표현하여 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표현하였다.

작품Ⅶ의 “우주에 떨어진 산타”는 ‘개념의 양극화’ 기법을 사용한 작품으로 산타가 여름 색감이 물씬 풍기는 연꽃잎 우산을 들고 개구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겨울에서 온 산타와 여름의 청개구리는 묘하게 어울려 두 개의 시공간을 형성한다. 순수한 산타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투명한 피부표현과 귀여운 볼터치로 캐릭터를 표현하였다.

작품 Ⅷ의 “나에게로 오세요.”는 외모 지상주의를 풍자하기 위해 ‘달려라 하니’에 나오는 민들레를 형상화하여 캐릭터 화 시켜보았다. 베이비핑크의 두꺼운 입술과 햇볕에 그을린 주근깨로 캐릭터의 특징을 살려주었다.

작품에 데페이즈망 기법을 접목시켜 메이크업 작품제작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포토샵의 사용 전, 후 비교를 통해 그 활용범위를 짐작할 수 있었다. 메이크업이 하나의 아트 작품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아이디어와 표현 방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미술회화작품과 메이크업과의 연관성에 관한 꾸준한 연구로 창의적인 작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단행본

- 강대영, 「한국분장예술」, 서울: 지인당, 1999.
- 김경진, 남선영, 「디지털 이미지 편집 & 합성을 위한 포토샵 7」, 교학사, 2002.
- 김공용, 「Airbrush illustrations」, 서울: 조형사, 1991.
- 김은애, 「포토샵 CS 무작정 따라 하기」, 길벗, 2004.
- 김춘일, 박남희, 「조형의 기초와 분석」, 서울: 미진사, 1991.
- 김효경, 「메이크업-이론과 실제」, 서울: 학연사, 2003.
- 노버트 린튼, 윤난지 역, 「20세기의 미술」, 서울: 예경, 2000.
- 노성두, 이주현, 「노성두, 이주현의 명화 읽기」, 한길아트, 1988.
- 매슈 게일, 「다다와 초현실주의」, 서울: 한길아트, 2001.
- 박보영, 이수경, 이진용, 「메이크업 아트」, 서울: 청구문화사, 2002.
- 박천신, 「디지털 아트 디지털 페인팅」, 서울: 한언, 2008.
- 베르너슈비츠, 박순철 역, 「막스 에른스트」, 서울: 열화당, 1994.
- 수지 개블릭, 천수원 역, 「르네 마그리트」, 서울: 시공사, 2000.
- 신현숙, 「초현실주의」, 서울: 동아출판사, 1992.
- 오광수, 「이야기 서양미술, 서양미술 이야기」, 서울: 정우사, 1997.
- 오인영,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서울: 훈민사, 2010.
- 월간미술편, 「세계 미술 용어 사전」, 서울:(주)월간미술, 1999.
- 이상봉, 「Mastering Beauty, 메이크업디자인」, 서울: 청구문화사.
- 이상훈, 「메이크업 예술 기법」, 서울: 도서출판 들샘, 2007.
- 이윤정, 정원정, 강명주, 「MAKE UP IDEA」, 서울: 청구문화사, 2009.
- 이종기, 「현대미술용어사전」, 서울: 중앙일보사, 1984.
- 이주현, 「미술로 보는 20세기」, 서울: 학고재, 1999.
- 이현주, 전연숙, 조진아, 한정아, 「The Make-up」, 서울: 도서출판예림, 2005.
- 임두빈, 「한권으로 보는 서양 미술사 이야기」, 서울: 가람기획, 2003.
- 임두빈, 「현대미술의 전개와 비평」, 서울: 미진사, 1988.
- 천지연, 노선옥, 이귀영, 이영애, 김정희, 강명주, 김은주, 정철순, 홍수경, 「FACES in make-up」, 서울: 청구문화사, 2009.
- 카트린 클링죄어 르루아, 김영선 역, 「초현실주의」, 마로니에북스, 2008.

- 피오나 브래들리, 김금미 역, 「초현실주의」, 서울: 열화당, 2003.
- 한국미용 학회, 「미용학 사전」, 서울: 신광출판사, 2003.
- 한명숙, 「마귀아주 예술」, 서울: 청구문화사, 1999.
- 한석우, 「입체조형-이론과 실제」, 서울: 미진사, 1991.
- H.H 애너슨, 이영철 역, 「현대 미술의 역사」, 한국 색채 문화사, 1992.
- Robert Hughes, 최기득 역, 「새로움의 충격」, 서울: 미진사, 1993.
- S. 알렉산드리아, 이대일 역, 「초현실주의 미술」, 서울: 열화당, 1992.

학위논문

- 강민정, 「패션누드에 나타난 보디페인팅의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강성주,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에 의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강현신, 「아트 메이크업에 표현된 큐비즘 이미지」,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권현아, 「뷰티 메이크업을 위한 포토샵 리터칭 기법 연구」, 복식문화연구.
- 김지영, 「데페이즈망 기법과 알레고리를 통한 회화의 표현방법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현미, 「포스터모던시대의 네오아방가르드 패션 메이크업의 기호적 해석」,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민수영,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보디페인팅 디자인 제작 기법」,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박혜선, 「조선시대 민화의 문자도를 응용한 보디페인팅 작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방기정,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신원선, 「아트 메이크업 교육을 위한 MIS 디자인 발상 프로세스」, 서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신원선, 오인영,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발상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2010.
- 이선영, 「초현실주의 기법을 이용한 아동화의 다양한 표현방법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운선, 「조르주 쇠라의 점묘법을 응용한 메이크업 작품제작」,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재형, 「에어브러시를 이용한 보디페인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현주, 「피카소의 회화를 이용한 보디아트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혜선, 「한국 색채와 문양을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 디자인」, 서경대학교 미용예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전옥희, 「초현실주의 우연성을 적용한 상상의 세계 표현 방법의 활성화」, 백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조은, 「르네 마그리트의 영향을 받은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조중석, 「현대조경설계에 있어서 초현실주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최경옥,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보디 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최지희,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을 이용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한정아, 「공예조형의 인체 형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국외 문헌

Cathrin Klingsohr-leroy, 「Surrealism」, Taschen, 2011.

Fiona Bradley, 「Surre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Hans Sedlmayr, 「Kierkegaard über Picasso」, Salzburg, Der Tod des Lichtes, 1964.

James Johnson Sweeney, Partisan Review 15, no.2, 1948.

Jerzy Markiewicz, 「Olbinski and the Opera」, Hudson Hills Press, NewYork and Manchester, 2003.

John Berger, 「Ways of Seeing」, Viking Press, 1995.

Lech Majewski, 「Rafal Olbinski Women」, Hudson Hills Press, NewYorkandManchester, 2005.

Noel Berrard, 「Magritte」, New York: Crown Publisher Inc, 1977.

Paul Moorhouse, 「Dali」, Thunder Bay Press, 1990.

Richard Carson, 「Fashion in Make-up: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Chester Springs: Peter Owns, 2003.

Richard Wilde, 「Olbinski posters for Performing Arts」, Hudson Hills

Press, New York and Manchester, 2004.

Sarane Alexandrian, 「Surrealist Art」, London: Thames and Hudson, 1985.

인터넷 자료

<http://angelfishphotoshopblog.blogspot.com/2011/05/surrealism.html>

(검색일자: 2012. 5.15) -구글 블로그

<http://armada0219.blog.me> (검색일자: 2012. 5. 1) -네이버 블로그

<http://www.bcpark.net/bbs/329435> (검색일자: 2012. 5. 14) -개인 홈페이지

<http://blog.daum.net/pen01> (검색일자: 2012. 5. 1)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seaworld1234/6933638>

(검색일자: 2012. 5. 5) -다음 블로그

<http://blog.naver.com/baetizen> (검색일자: 2012. 5. 1)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chick5540142709419>

(검색일자: 2012 .5. 14) -네이버 블로그

<http://cafe.naver.com/motiontree/710> (검색일자: 2012. 5. 14) -네이버 블로그

<http://fr.wahooart.com> (검색일자: 2012. 5. 1) -와후아트닷컴

<http://jyj2422901.blog.me/40108809321> (검색일자: 2012. 5. 4) -네이버 블로그

<http://matthom.com/archive/photoshop> (검색일자: 2012. 5. 4) -개인 웹블로그

<http://pariskitty.blog.me> (검색일자: 2012. 5. 1) -네이버 블로그

<http://popsci.hankooki.com/> (검색일자: 2012. 5. 13) -한국일보

<http://radionell.tistory.com> (검색일자: 2012. 5. 1) -티스토리 블로그

<http://uforadio.egloos.com/3024392> (검색일자: 2012. 5. 1) -이글루스 블로그

<http://www.elle.com/Runway/Fall-2012-RTW>

(검색일자: 2012. 5. 1) -엘르닷컴

<http://www.eyeshadowlipstick.com> (검색일자: 2012. 5. 1) -개인 홈페이지

<http://www.lennettenewell.com> (검색일자: 2012. 5. 1) -라네트 뉴엘 홈페이지

<http://www.rsstanford.com> (검색일자: 2012. 5. 1) -구글 블로그

<http://yo12yo12.blog.me> (검색일자: 2012. 5. 1) -네이버 블로그

ABSTRACT

A Study on Dépaysement by Rafal Olbinski applied Make-up work production

KIM, Yeon A

Make-up and Special effect make-up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cultural circumstance by contemporary mass media led to overflow of visual image. This visual image which we can face in everyday life have been selected or even further studied for expanding range of creation by artists. Thus, the situation that we encounter variety of visual image in contemporary society is natural.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present following two main issues; Firstly, this report will analyze Rafal Olbinski's pieces which utilize dépaysement of Surrealism so that create new characters and story. Secondly, this dissertation suggest that make a work by using photoshop, compare between before use and after use to show a range of utility.

Thus, the contents of dissertation consist of 4 main steps. The report will define Surrealism and describe each characteristic of Surrealism

technique. Secondly, this report will concentrate and carry out comparative analysis for artists who utilize *dépaysement*. This is due to this dissertation will narrow down *dépaysement* by dividing into 8 main specified techniques. As third step, this report will collect pieces of Rafal Olbinski based on these 8 main specified techniques. Lastly, I will create new piece through re-creation process by combining collected image and author's imagination. As you can see in conclusion paragraph, Piece I is utilized 'Modification' technique, II and III are utilized 'Hybridization' technique, IV is utilized 'Paradox' technique while piece V ~ VIII are based on 'Conceptual Bipolarity' technique.

To sum up with, author hopes this dissertation will be used by students who would like to study Make-up and character design as educational materials. At the same time, Author also hopes it will be used as materials for new idea generation in relative industry. Finally, author hopes that make-up is deserved as independent work of art and further study for it will become activity in near future.